

대학생의 애착인물별 성인애착 수준 유형화 : 잠재프로파일 분석

Adult Attachment Styles across Close Relationships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 A Latent Profile Analysis

김 주 은(Jueun Kim)¹, 이 재 립(Jaerim Lee)^{2*}

¹Department Consumer and Family Sciences, Sungkyunkwan University, ²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latent styles of attachment across four major attachment figures (i.e., father, mother, best friend, and romantic partner) for Korean emerging adults. In this study, adult attachment had two dimensions (i.e., attachment anxiety and avoidance) and was measured by the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Relationship Structures (ECR-RS). Data came from 317 undergraduate students in nine universities across the nation. A latent profile analysis classified the sample into four groups. (a) The “somewhat father avoidant secure” group reported the lowest levels of attachment anxiety and avoidance across close relationships but was moderately avoidant in their relationship with the father. (b) The “overall avoidant” group had the highest levels of attachment avoidance across close relationships, but along with the “father avoidant secure” group, they had the lowest levels of attachment anxiety. (c) The “romantic anxious” group was unique with the highest level of attachment anxiety toward romantic partners while reporting relatively lower levels of attachment avoidance across relationships. (d) The “overall anxious-avoidant” group was the highest in attachment anxiety and avoidance across all of their close relationships except for attachment avoidance from best friends and romantic partners, which were the highest among the “overall avoidant” group. These four groups also differed in their levels of depressive symptoms and affection for the father and the mother. This study uniquel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identifying the latent attachment styles considering four attachment figures and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attachment styles.

▲주제어(Key words): 성인애착 유형(adult attachment styles), 애착인물(attachment figures), 대학생(college students), 잠재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 본 연구는 제1저자의 석사학위논문 및 2014년 4월 대한가정학회 및 한국가정관리학회 주관 통합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연구에 토대를 두었으나, 분석방법 변경에 따라 연구결과에 차이가 있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Chih-Yuan S. Lee(미국 Montclair State University 교수), Catherine A. Solheim(미국 University of Minnesota 교수)과 교신저자가 함께 설계한 질문지를 사용하였음.

* Corresponding Author : Jaerim Lee,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1 Gwanak-ro Gwanak-gu, Seoul 08826, Republic of Korea, Tel: +82-2-880-6853, E-mail: jrlee@snu.ac.kr

I. 서론

성인애착(adult attachment)은 연인관계에서 발견되는 애착이 발달 초기에 주양육자와 형성하는 애착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J. Bowlby의 애착이론을 C. Hazan and P. Shaver(1987)가 성인기로 확장시키면서 등장한 개념이다. 성인애착의 개념은 발달 초기에 형성된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이 성인기에도 유지된다는 관점에서 등장하였으나, 최근에는 내적작동모델이 항상 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최근의 연구자들은 발달 초기 주양육자와 형성한 애착관계 혹은 초기의 부모-자녀 애착관계는 계속되더라도, 그 이후 발달과정에서 애착인물(attachment figures)이 전환되면서 새로운 애착관계가 추가로 형성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애착인물에 따라 차별적인 애착패턴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발달에 따라 개인의 내적작동모델이 더 복잡해진다는 주장도 있다(H. Cho & Y. Seo, 2010). 따라서 주양육자인 부모뿐만 아니라 다양한 애착인물과의 애착관계에 관심을 두고, 성인애착을 애착인물별로 측정하여 애착의 형태나 수준이 어떠한 잠재적 패턴을 갖고 있는지를 경험적 연구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초기 성인기 또는 성인이행기(emerging adulthood)에 해당하는 대학생 시기는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으로 대표되며, 급변하는 주변 환경 속에서 자신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이다(J. Arnett, 2000). 이 시기에는 부모와의 애착과 독립된 자기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이루고 살아가는지가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이 때 친구나 연인과 형성한 새로운 애착관계가 생활의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초기 성인기에는 애착인물의 전환이 이루어지기도 하며 애착인물이 다양해지는 시기로서, 이 시기에 활성화되어 있는 표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애착의 패턴이 변화될 수 있다(K. Kim, 2005). 따라서 아버지, 어머니, 친구, 연인 등 대학생의 주요 애착인물에 대한 탐색은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할 연구 주제라 할 수 있다.

그동안의 성인애착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제약으로 인해 다양한 애착인물을 동시에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성인애착을 측정하는 기존 측정도구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애착의 대상을 고려하지 않거나, 특정한 대상과의 애착만을 측정한다는 점이다. 성인애착의 측정도구는 면접법과 자기보고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특히 널리 쓰이는 자기보고식 측정도구는 애착의 대상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C. Fraley, M. Heffernan, A. Vicary, & C. Brumbaugh, 2011). 또한, 성인기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들은 구조와 형식이 다양할 뿐 아니라 척도에 따라 측정하는 개념이 현저하게 다름에도 불구하고(H. Jang, 1999) 애착인물별로 한 연구 안에서 상이한 성인애착 측정도구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서 구조와 형식이 다른 부모애착 측정도구와 연인애착 측정도구를 동시에 사용하여 부모애착과 연인애착을 병렬적으로 논의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방식의 성인애착 측정은 서로 다른 척도로 측정된 내용의 안정성과 척도 간의 상호관계, 연관성이 불완전하다는 제한점이 있다(M. Baldwin, J. Keelan, B. Fehr, V. Enns, & E. Koh-Rangarajoo, 1996; E. Klohnen, J. Weller, S. Luo, & M. Choe, 2005).

이상과 같은 기존의 성인애착 측정도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최근 C. Fraley et al.(2011)은 아버지, 어머니, 친구, 연인과의 애착을 분리하여 측정할 수 있는 the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Relationship Structures(ECR-RS)를 개발하였다. 애착유형은 개인의 고유한 특성이 아니라 애착인물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M. Baldwin et al., 1996)을 고려하여 개발된 ECR-RS는, 국내에서도 널리 활용되어온 ECR 및 ECR-R을 보완하여 애착인물별로 애착불안(attachment anxiety)과 애착회피(attachment avoidance)를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된 도구이다. ECR-RS는 애착인물을 고려하지 않는 기존의 성인애착 측정도구에 비해 우울과 같은 개인 내적 변수와 관계만족도, 이별을 경험할 가능성, 감정적 표현에 대한 인식과 같은 대인관계 관련 변수를 더 잘 예측한다고 한다(C. Fraley et al., 2011). 이러한 강점이 있는 ECR-RS를 국내에서도 도입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되나, 현재 국내의 문헌에서 ECR-RS를 사용한 사례는 성인애착과 대처양식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E. Jang & J. Lee, 2015) 한 편뿐이다.

성인애착 문헌에서 애착의 유형은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연인과의 애착을 안정형, 회피형, 불안-양가형으로 분류한 C. Hazan and P. Shaver(1987)의 유형과, 이 분류를 참고하여 일반적인 성인애착을 안정형, 무시형, 집착형, 두려움형으로 분류한 K. Bartholomew and L. Horowitz(1991)의 유형은 전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한편, 일부 학자들은 기존의 성인애착 측정도구를 사용하되, 측정도구에서 얻은 연속적인 점수들을 토대로 새롭게 성인애착을 유형화하였다. 예를 들어, D. Lee, S. Lee, and H. Kim(2009)은 4개의 성인애착 유형을 하위 영역으로 하는 Relationship Scales Questionnaire(RSQ)를 사용하여 한국 대학생의 성인애착을 측정한 후, 4개 유형별 점수에 대해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여 3개의

집단을 도출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RSQ에서는 4개 하위 영역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유형에 응답자가 속하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이는 점수의 차이가 근소하더라도 한 가지 유형에만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등 불연속 범주인 애착유형을 연속적인 변수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각 하위영역의 점수를 활용하여 다시 애착유형을 분류할 필요가 제기된다 (D. Lee et al., 2009).

최근에는 RSQ에서와 같이 애착유형별로 점수를 구하는 범주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성인애착을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의 두 차원으로 나누고 각 차원을 연속변수로 측정하는 차원모형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K. Brennan, C. Clark, & P. Shaver, 1998; C. Fraley & N. Waller, 1998). 앞서 언급한 ECR과 ECR-R은 차원모형의 대표적인 측정도구이다. 그러나, 차원모형에서는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의 수준만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애착 연구자들의 전통적인 관심사인 애착유형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차원모형의 측정도구를 사용했을 때는 애착유형을 분류하기 위해서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점수를 토대로 새롭게 유형화를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때 성인애착에서 서로 다른 애착인물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애착인물별 특성을 고려한 유형화를 시도함으로써 보다 정교한 애착유형을 발견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 어머니, 친구, 연인이라는 4가지 애착인물별로,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를 측정한 총 8개의 점수를 사용하여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 도출되는 유형은 8개의 점수에서 모두 차이가 나타나는 복잡한 양상일 수도 있지만, 애착의 내적작동모델 관점에서 보면 몇 가지 대표적인 패턴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듯 한국 대학생들의 애착인물별 애착불안 및 애착회피 수준이 주로 어떠한 패턴으로 요약되는지 살펴봄으로써 한국 대학생의 성인애착에 대한 명료하고 효율적인 이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주요 애착인물에 따른 성인애착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ECR-RS를 도입하여 대학생의 성인애착 수준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우선 대학생의 주요 애착인물인 아버지, 어머니, 친구, 연인에 대한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수준이 어떠한 패턴으로 요약되는지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사용하여 유형을 도출하고, 각 유형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형에 따라 사회인구학적 특성, 우울, 부모에 대한 애정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잠재프로파일 분석은 인물중심(person-centered) 군집화 방법인 잠재계층 분석(latent class analysis)의 일종이다. 국내에서 거의 활용되

지 않은 ECR-RS를 활용하여 한국 대학생의 애착인물별 성인애착 수준을 측정하고, 애착인물별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몇 가지 특징적인 패턴으로 압축되는지 보여주는 본 연구의 결과는 성인애착과 관련된 연구 및 임상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애착인물(아버지, 어머니, 친구, 연인)별 대학생의 성인애착(애착불안과 애착회피)의 전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애착인물별 대학생의 성인애착 수준에 따라 구분되는 유형의 수는 몇 가지이며, 각 유형의 애착인물별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수준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구분된 성인애착 유형에 따라 대학생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우울, 부모와의 애정에 차이가 있는가?

II. 선행연구 고찰

1. 성인애착 개념

1) 애착의 특성 및 유형

애착은 정서적 유대로서 개인에게 안정된 느낌과 정서적 위안을 주는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말한다(M. Ainsworth, 1989; J. Bowlby, 1988). 영아와 주양육자인 어머니와의 관계와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영아의 애착행동에 대해 주양육자의 반응이 얼마나 민감했는가에 따라 애착이 안정적인지 혹은 불안정한지가 결정된다. 어린 시절의 경험은 정서적, 인지적으로 내면화되어 하나의 안정적인 표상체계를 이루고 각 개인마다의 특정한 애착양식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를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이라고 한다(Y. Kim, 2012). 내적작동모델은 상보적으로 발달하는 자기와 애착인물에 대한 내적 표상으로 (S. Lee & J. Lee, 2005), 자기와 타인에 대한 신념이나 기대를 말한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표상인 내적작동모델은 애착경험의 반복과 축적을 통해 긍정적이거나 혹은 부정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긍정적인 자기 표상을 갖고 있는 개인은 유능감과 자기가치감이 높고, 타인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대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된다. 또한 긍정적인 타인 표상을 갖고 있는 개인은 타인이 자신의 요구에 응할 것이고 지지적이며 신뢰할 만하고 친밀한 관

계를 허용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다(N. Shin & C. An, 2004).

내적작동모델은 발달 초기의 영아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이후 개인의 다양한 발달을 이끌게 된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표상은 특히 성인이 되어서까지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애착의 개념을 처음 제시한 J. Bowlby(1988)는 내적표상들이 애착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계속 축적되므로,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그 영향이 지속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J. Bowlby(1988)는 애착이란 역동적이어서 발달 초기에 형성된 애착의 질이 지속되기도 하지만 극적인 경험이나 사건으로 인해 재조직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애착의 내적표상은 한편으로는 쉽게 변화하지 않는 속성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역동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애착의 유형은 J. Bowlby의 애착이론을 토대로 M. Ainsworth와 동료들이 '낯선 상황 실험'을 통해 발달 초기의 애착을 분류한 이후 연구자들의 꾸준한 관심사가 되어 왔다. 이들은 12-18개월 영아의 애착유형을 안정형, 회피형, 양가형(저항형)의 세 가지로 구분했다(M. Ainsworth, M. Blehar, E. Waters, & S. Wall, 1978). 이 세 가지 애착 유형은 각각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주양육자 선정 전략을 반영한다. 안정형(secure) 아동은 자유롭게 탐색하고 필요에 의해 애착대상과의 접촉을 원한다. 회피형(avoidant) 아동은 탐색에 초점을 두고 애착대상을 살피며 근접성을 유지하지만 거부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애착의 욕구를 표현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양가형(ambivalent) 또는 저항형(resistant) 아동은 관심을 받기 위해 높은 수준의 요구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비밀관적인 양육자의 존재에 몰두한다. 이 중 회피형과 양가형(저항형)은 불안정 애착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애착의 유형화는 애착이라는 현상을 명료하게 설명하고 연구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현재까지도 애착연구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 성인애착의 특성

어린 시절 주양육자인 부모와의 애착관계에서 형성된 애착의 질은 이후 성인기에 형성하게 되는 친밀한 대인관계, 특히 연인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C. Hazan & P. Shaver, 1987) 성인애착(adult attachment)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애착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표상뿐만 아니라 관계에 대한 기대감을 포함하기 때문에 발달 초기의 애착관계 경험을 통해 형성된 개인의 인지적 표상은 이후 성장하면서 새롭게 형성하게 되는 개인의 애

착관련 상황과 그 애착인물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예를 들면, 유아기에 주양육자인 부모와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했던 사람은 성인이 된 뒤에도 애정의 대상이 신체적인 접촉에 대한 욕구나 자기 개방, 안전감 등을 충족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할 것이다. 또한 자신이 그러한 욕구를 표현했을 때 상대방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기대하게 된다. 그러나 부모와 불안정한 애착관계를 형성했던 사람은 애정대상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며, 상대방을 잘 신뢰하지 못하거나 너무 쉽게 신뢰하여 만족스런 애정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J. Kim, 1992). 최근 성인애착이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큰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발달 초기의 애착이 다소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어린 시절에 형성한 애착이 한 개인의 전 생애에 걸쳐 발달의 다양한 영역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며 정서적 기틀이 되기 때문이다. 발달 초기에 형성된 애착유형이 내적작동모델의 형태로 지속되어 성인기에서도 연인관계와 같은 타인과의 관계양식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인애착은 발달 초기의 애착과는 다른 점이 있다. 성인애착은 발달 초기 주양육자와 유아와의 애착관계와는 달리 상호작용적이다(O. Chung, S. Chung, & H. Hwang, 2009). 발달 초기에는 유아가 주양육자와 분리된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울거나 찾거나 하는 등의 애착행동을 하는 일방적인 형태로 나타내지만, 성인애착 행동체계는 발달 초기와는 달리 서로에게 애착을 형성한다. 더불어 성인애착이 초기의 애착과 다른 점은 영아애착보다 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성인애착은 정서적 결속감 뿐만 아니라, 동료애, 동일한 경험 공유, 성적 결속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O. Chung et al., 2009). 이를 근거로 성인애착 연구에서는 애착의 질과 다양한 심리사회적 기능이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밝히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 또한 발달 초기의 애착이 얼마나 안정적이며 얼마나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

성인애착의 안정성과 변화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입장이 있다. 먼저, 초기의 애착연구는 발달 초기의 애착이 일생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이후 성인기의 애착관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이다. 이들 연구는 발달 초기 애착의 질적 특성이 성인기에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초기 성인기의 발달과 적응, 대인관계와 개인의 성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이러한 초기 애착연구는 최초의 애착관계에 초점을 두며, 애착의 질이 변화하지 않고 전 생애를 통해 지속된다는 입장(J. Kim, 1998)을 고수한다. 한편 최근에는 발달 초기에 형성

된 애착이 발달과정에서 변화를 겪을 수 있으며, 또한 애착인물에 따라 차별적인 애착유형이 형성되기도 한다는 입장이 좀 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초기에 애착을 연구하였던 J. Bowlby(1980) 또한 어린 시절의 경험으로 형성된 애착유형이 이후 양육자의 태도 변화나 타인들과의 또 다른 경험에 의해서 수정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3) 주요 애착인물

최근의 애착관련 문헌에서는 애착인물(attachment figures)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발달 초기의 애착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애착인물 중 누군가와 어떤 애착의 질을 형성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과의 애착관계 중 어떤 애착관계가 개인의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지도 중요하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P. Colby, 2009). 예를 들어 아버지와의 애착과 어머니와의 애착을 분리하여 살펴본 J. Hong(2006)의 연구에서는, 한 개인의 내적 표상에 미치는 정도나 개인의 심리적 기능과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버지 애착과 어머니 애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J. Shin(2002)의 연구에서는 아버지 애착이 어머니 애착보다 대인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컸다고 하였다. S. Hwang(2010)은, 자녀의 어머니 애착은 자녀의 처음관계 맺기와 정서적 지지에서 유의미하지만 아버지 애착에 비해 예측력이 낮았고, 특히 남자 대학생 자녀에게 어머니 애착보다는 아버지 애착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히면서 아버지 애착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주양육자인 어머니와의 정서적 유대뿐만 아니라 아버지와의 정서적 유대도 개인의 자기표상과 친밀한 대인관계표상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G. Han, 2013).

초기 성인기 또는 성인이행기(emerging adulthood: J. Arnett, 2000)에 속하는 대학생 시기는 친밀성의 획득이라는 발달과업이 중요한데, 부모나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 즉 친구나 연인과의 관계로부터 친밀감을 경험하게 된다(E. Erikson, 1959). 즉, 대학생 시기에는 부모와의 애착을 바탕으로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을 이루고, 친구나 연인과 성인애착을 형성해 가는 것을 주요 발달과업으로 한다(S. Sun, 2009). 성인애착 개념을 처음 제안한 C. Hazan and P. Shaver(1987) 또한 영아와 주양육자의 발달 초기 애착은 중기 청소년기 이후 친밀한 친구애착으로 전환되고, 후기 청소년기에 이르러서는 성인애착으로 전환된다고 하였다. 이들은 발달초기 애착과 관련된 애착표상이 친구관계나 연인관계를 경험하면서 새롭게 수정되고 변화된다고 하였다(C. Hazan & P. Shaver, 1987; E.

Joo, 2010; E. Park & J. Lee, 2009; L. Sroufe & J. Fleeson, 1986; S. Sun, 2009). 실제로 대학생 시기는 부모와의 애착보다는 친구, 연인 등과의 성인애착 경험이 보다 중요해지는 단계인데(S. Kim, M. Kang, & Y. Kim, 2011), 애착인물의 변화와 애착욕구를 친구 또는 연인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정서적 안정감을 획득할 수 있다.

한편 대학생들은 친구나 연인과 애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친구관계는 다른 대인관계와 마찬가지로 항상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며, 친구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동안 상당한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다(E. Jeon, 2010). 또한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연인관계는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로서, 바람직한 연인관계를 통해 인간관계 기술이나 정서적 위안처 등 많은 유의한 점을 얻기도 하지만, 갈등이 잦은 연인관계는 대학생들의 정서적, 심리적 문제와 직접 관련이 될 만큼 큰 갈등요인이 되기도 한다(S. Choi, 1989). 이처럼 대학생이 되면 애착을 형성하는 대상이 다양해지고(Y. Cho & H. Choi, 2001), 확장된 애착관계를 통해 친구 및 연인으로부터 부모와 동등한 수준의 지지를 제공받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을 겪음으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대학생의 성인애착을 연구할 때 부모 이외에도 친구, 연인 등의 친밀관계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애착인물의 전환뿐만 아니라, 발달 초기에 갖고 있던 애착특성들은 새로운 애착관계로 순차적으로 전이된다. 다시 말해, 애착인물이 확장될 뿐 아니라 애착특성도 애착인물 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C. Hazan and D. Zeifman(1994)은 애착특성 3가지(근접성 유지, 피난처, 안전기지의 기능)가 전이과정에서 애착인물별로 각각 다르게 전이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들에 따르면, 애착의 근접성 유지 요인은 이른 아동기에 전이되며, 피난처 요인(애착인물을 피난처로 삼아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애착인물에게서 위안을 얻는가)은 청소년기 혹은 초기 성인기에 전이되었다. 안전기지 요인(애착인물을 안전기지로 삼아서 주변의 환경을 안전하게 탐색할 수 있는가)은 초기 성인기에 전이되는 것으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가능하다면 부모에게 최우선으로 획득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애착인물과 신체적 근접성을 추구하고 정서적 위안을 받을 수 있는 피난처 기능은 부모가 아닌 친한 친구 및 연인에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애착관계 내의 다양한 특성들이 좀 더 강력하게 애착의 발달과 전이에 연관되어 있음에도, 지금까지의 애착연구는 부모와의 애착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전통적 애착이론에 따르면 발달 초기 부모와의 애착이 낮은 환경을 탐색할 때 안전기지의 역할을

		MODEL OF SELF (Dependence)	
		Positive (Low)	Negative (High)
MODEL OF OTHER (Avoidance)	Positive (Low)	Secure (Comfortable with intimacy and autonomy)	Preoccupied (Preoccupied with relationships)
	Negative (High)	Dismissing (Dismissive of attachment, counter-dependent)	Fearful (Afraid of intimacy, socially avoidant)

Figure 1. Four category model of adult attachment
(Bartholomew & Horowitz, 1991: 227)

하므로, 초기 성인기 동안에도 부모애착은 새로운 환경을 탐색 가능하게 하며, 정서적인 적응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부모 이외의 다양한 애착인물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애착기능이 작용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따라서 초기 성인기의 애착인물별 성인애착을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성인애착 유형 및 측정

1) 성인애착 유형

성인의 애착유형은 일반적으로 범주모형과 차원모형으로 나뉜다. 범주모형은 C. Hazan and P. Shaver(1987)가 처음 제시하였으며, 크게 3범주형 혹은 4범주형으로 구분된다. 영아의 애착유형을 토대로 성인의 애착유형을 분류한 C. Hazan and P. Shaver(1987)는 성인의 애착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연인과 관계 분석하였고 세 범주인 안정형, 회피형, 불안-양가형으로 구분하였다. 이후 C. Hazan and P. Shaver의 3범주 모형을 참고하여 K. Bartholomew and L. Horowitz(1991)는 Figure 1과 같이 4범주 모형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이들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애착표상을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구분하였다. 즉,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보살핌을 받을 가치 있는 존재인가 아닌가와 같은 자신에 대한 표상과, 타인이 내가 신뢰할 수 있고 나를 도울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닌가와 같은 타인에 대한 표상에 따라 네 가지 범주인 안정형, 무시형, 집착형, 두려움형으로 분류된다(H. Won & Y. Lee, 1997). 4범주형은 성인애착 유형을 분류하는 데 있어 3범주보다 불안정 성인애착 집단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H. Jang, 1997).

K. Bartholomew and L. Horowitz(1991)에 따르면 성인애착 유형이 안정형(secure)인 사람은 자신에 대한 만족감과 타인에 대한 신뢰감이 모두 높아 자신과 타인에

대해 모두 긍정적이다. 무시형(dismissing)인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사람으로, 일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은 높지만 대인관계에 대해서는 적대적이고 차갑다고 묘사된다. 집착형(preoccupied)인 사람은 안정형이나 무시형과는 달리 자신에 대해서는 무가치하다고 느끼지만 중요한 타인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이상화시키는 특성이 있다. 두려움형(fearful)에 속하는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에 대해 모두 부정적이어서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며, 자아존중감이 낮고 내향적이며 대인관계에서도 자기주장을 잘 내세우지 못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타인과의 관계를 회피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다.

최근에는 성인애착을 범주형으로 구분하는 대신, 연속적인 차원에서 살펴보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K. Brennan et al.(1998)은 기존의 모든 성인애착 척도의 문항을 모아 328문항의 애착척도를 개발하였는데, 새롭게 개발한 척도로 성인애착을 측정해본 결과 회피(avoidance)와 불안(anxiety) 요인이 기존의 모든 애착척도에 내재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K. Brennan et al.(1998)은 회피와 불안의 높고 낮음에 따라 성인애착 유형을 연속적인 차원에서 개념화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C. Fraley and N. Waller(1998)는 Figure 2에서와 같이 성인애착의 차원 모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불안(anxiety) 차원은 애착관계에 지나치게 몰두하며 거절당하거나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며, 회피(avoidance) 차원은 애착인물에게 가까이 접근하거나 또는 피하려는 행동조절체계이다. 안정형(secure)과 무시형(dismissing)은 불안 차원의 점수가 낮은 반면, 두려움형(fearful)과 집착형(preoccupied)은 불안 차원의 점수가 높다. 또한, 안정형과 집착형은 회피 차원의 점수가 낮은 반면, 무시형과 두려움형은 회피 차원의 점수가 높다. 안정형인 성인은 불안과 회피 두 차원 모두에서 역치가 높아 사소한 부정적인 단서에 반응하지 않는데 비해, 집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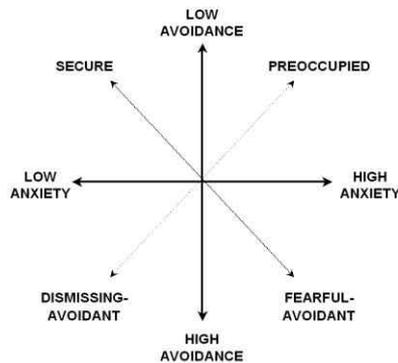


Figure 2. The two-dimensional model of adult attachment
(C. Fraley, N. Hudson, M. Heffernan, & N. Segal, 2015: 355)

형은 불안 차원에서 역치가 낮기 때문에 애착인물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가능성과 애착인물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상과 같이 성인애착을 유형화하려는 노력들은 성인애착의 다양성과 다차원성을 드러내고 성인애착을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성인애착 연구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기존에 제시된 성인애착의 유형들은 애착인물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대한 한계가 있다(C. Fraley et al., 2011). 발달과정에서 애착인물별로 상이한 애착패턴을 형성할 수 있다는 최근 연구자들의 지적이나, 애착유형별로 선호하는 애착인물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H. Freeman & B. Brown, 2001)를 고려할 때, 성인애착을 유형화함에 있어서도 애착인물별 애착 수준을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성인애착 측정

성인애착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크게 면접과 자기보고식이 있다. 면접법은 성인으로 하여금 어린 시절의 애착과 관련된 경험을 이야기하게 하여 아동기 애착경험과 현재의 애착관계를 살펴보는 것으로, 성인기 애착의 질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대표적 성인애착 면접은 Adult Attachment Interview(AAI: M. Main, N. Kaplan, & J. Cassidy, 1985)인데, AAI의 면접은 한 시간 반이 소요되고 전사와 코딩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면접의 시행은 훈련자와 몇 번의 연습회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반면, 전사를 코딩하는 기술은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자기보고식으로 성인애착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도구는 AAQ 부류, RQ 부류, ECR 부류가 있다. Adult Attachment Questionnaire(AAQ)는 연인과의 성인애착

을 안정형, 회피형, 불안-양가형으로 분류한 C. Hazan and P. Shaver(1987)의 성인애착 유형을 측정하기 위하여 J. Simpson, W. Rholes, and D. Phillips(1996)가 개발하였다. AAQ는 초기의 낭만적 애착연구에서 많이 사용되었지만, 신뢰도가 비교적 낮게 보고되어 왔다는 문제점이 있다(P. Shaver & K. Brennan, 1992).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N. Collins and S. Read(1990)는 AAQ를 수정하여 Revised Adult Attachment Scale(RAAS)을 제시하였다. RAAS는 세 가지 애착유형에 대해 응답자들이 더 세세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전에는 없던 애착의 주요 특성인 애착인물의 접근가능성과 유용성에 대한 믿음, 애착인물과 이별할 때의 반응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여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Relationship Questionnaire(RQ)는 K. Bartholomew and L. Horowitz(1991)가 제시한 Figure 1의 성인애착의 4범주(안정형, 무시형, 집착형, 두려움형)를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이 척도는 연인, 친구, 일반적인 타인과의 형성하고 있는 애착관계에 대해 자기모델(긍정 또는 부정)과 타인모델(긍정 또는 부정)의 두 가지 축에 대해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판단하여 애착유형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후 D. Griffin and K. Bartholomew(1994)는 RQ를 보완하여 Relationship Scales Questionnaire(RSQ)를 제안하였다.

The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 Scale(ECR)는 K. Brennan et al.(1998)이 이전의 자기보고식 애착 척도들을 통합하여 482개의 문항들을 수집하고 중복된 정도를 평가하여 최종 60개의 문항을 추출한 후, 요인분석을 통하여 최종 36개의 문항을 선택하여 개발된 척도이다. K. Brennan et al.(1998)의 요인분석 결과, 회피(avoidance)와 불안(anxiety)의 2개 요인이 도출되었고, 4

개의 성인애착 유형 즉, 안정형, 집착형, 무시형, 두려움형이 나타났다. The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 Scale-Revised Questionnaire(ECR-R)는 ECR의 수정된 버전으로, 문항반응이론에 기초하여 ECR을 개발하는 데 사용된 문항들의 선별작업을 통하여 C. Fraley, N. Waller, and K. Brennan(2000)이 개발하였다. ECR-R은 총 36문항으로 불안 하위척도 16문항, 회피 하위척도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기존의 자기보고식 성인애착 측정도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제한점이 있다. 첫째, 애착인물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거나 애착인물을 구분하여 측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기보고식 측정도구들의 차이는 측정방법의 차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측정대상의 차이나 측정하고자 하는 관련 변수에 따라 달리 개발되어 쓰인다는 것이다(M. Jin & M. Yoo, 2005). 여기서 측정대상의 차이라는 것은 애착 측정도구에서 애착을 측정할 때 연상하도록 하는 애착인물의 차이를 의미한다. C. Fraley et al.(2011)에 따르면 성인애착을 연구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자기보고식 성인애착 측정도구는, 친밀한 관계가 연인관계를 지칭하는 것인지 부모, 친구 등과의 관계인지 대상을 명확히 상술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애착인물이 명확해야 하는 이유는 대상에 따라 애착의 영향력이나 질적인 속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어머니 애착과 아버지 애착은 질적으로 다른 속성을 지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J. Shin, H. Bang, & J. Yoon, 2009). 또한 최근에 어머니 애착과 아버지 애착의 영향력이 서로 다른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J. Ross & J. Fuertes, 2010),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애착인물별로 애착수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현재는 발달 초기의 애착이 성인애착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애착인물의 전이와 애착수준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가설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만큼, 대상별로 애착수준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연구가 중요해졌다. 그러나 기존의 애착 측정도구는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ECR 이전까지의 성인애착 측정도구는 성인애착을 연속된 차원의 개념이 아닌 3-4가지의 범주형으로 분류하는 측정도구를 주로 사용해왔다. 이러한 범주형 척도를 사용할 경우 이미 정해진 점수 기준에 따라 애착문항에 대한 응답의 총점을 사용하여 개인의 애착유형을 분류하기 때문에, 점수 차이가 근소하더라도 다른 유형으로 분류되는 등 제한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의 성인애착 연구자들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애착유형을 획일적으로 분류하기보다 애착을 연속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불안과 회피 두 가지 차원을 함께 고려하는 ECR과 같은 측정도구에 좀 더 관심을 두고 있다. D. Lee et al.(2009)은 애착의 유형과 차원은 서로 다른 것이며 이 차이를 이해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계산한 점수만을 기초로 특정 개인이 특정한 애착유형에 속한다고 범주형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애착 측정도구인 AAQ는 성인애착을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불연속적인 범주 척도이기 때문에 반응자들이 각 범주에 대한 문항이 자신의 생각과 일부만 일치할 경우 답변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N. Collins & S. Read, 1990). RSQ는 애착의 네 가지 유형별로 평균 점수를 계산하여 가장 점수가 높은 영역이 응답자의 성인애착 유형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이 척도는 두 개 이상의 유형에서 동점을 얻을 경우 어느 한 유형으로 범주화하지 못하며, 네 가지 유형에서 서로 다른 점수 양상을 보이는 개인이라도 최고 점수만 같으면 동일한 유형으로 범주화하는 제한점이 있다(D. Lee et al., 2009).

셋째, 지금까지의 성인애착 측정도구는 척도를 개발할 때 특정한 인물을 고려하지 않고 제작되었다. 예를 들어 아버지 애착에 대해서만 측정하려고 하더라도 기존의 측정도구를 사용할 경우 아버지와 애착경험에 대해서만 떠올리게 한 후 응답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주요 친밀대상에 대해서 회상하도록 한 후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 연구에서 아버지 혹은 어머니와 같이 한 대상에 대한 애착수준만을 측정하려고 할 때에도 측정대상이 모호한 성인애착 측정도구를 계속 사용해 온 것이다. K. Brennan et al.(1998) 또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성인애착의 자기보고식 측정방법은 애착인물의 특성에 맞게 측정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두 대상의 애착을 측정할 때 하나의 애착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마치 다른 두 대상의 애착 측정방법이 동일한 것처럼 측정하고 이를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는 애착의 특정한 인물을 고려하지 않고 제작된 성인애착 측정도구들만 있었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측정의 한계점이 있었다.

주요 애착인물인 아버지, 어머니, 친구, 연인과의 애착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문항에 대해 애착인물별로 각각 응답하게 하는 측정도구를 사용함으로써 보다 정교한 측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많은 성인애착 연구들에서는 대상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성인애착 측정도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성인애착 측정도구는 구조와 형식이 다양할 뿐 아니라, 도구마다 성인애착을 개념화함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H. Jang, 1999), 성인애착을 연구할 때는 한 연구에서 한 가지 도구만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종합하면, 애착이라는 개념이 성인기에는 다양한 친밀 관계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H. Jang, 1999), 주요 친밀 대상인 아버지, 어머니, 친구, 연인에 대한 각각의 애착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학생은 이성과의 관계에서 발달과업인 친밀감을 획득하고자 하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애착뿐만 아니라 연인이나 친구 애착정도도 알아봄으로써 한국 대학생들의 대인관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친구, 연인이라는 주요 애착인물별로 성인애착을 측정하기 위하여 C. Fraley et al.(2011)이 개발한 측정도구인 ECR-RS를 사용하여 한국 대학생의 성인애착을 측정하고, 애착인물별 성인애착 점수를 토대로 대학생의 성인애착을 유형화하고자 한다. ECR-RS는 ECR-R의 총 36문항 중 연인관계에만 국한된 문항 및 다른 문항과 중복되는 문항을 제외한 10개의 문항을 사용하여, 4가지 애착인물(아버지, 어머니, 가장 친한 친구, 연인)과의 관계에 대해 약 21,000명에게 응답하도록 한 결과를 토대로 검증된 도구이다(C. Fraley et al., 2011). C. Fraley 등은 이 조사에 사용된 10문항 중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모두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난 1개 문항을 제외한 총 9문항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하였다. 이후 미국(A. Jarnecke & S. South, 2013), 폴란드(B. Bączkowski & L. Cierpiałkowska, 2015) 등에서 ECR-RS의 좋은 신뢰도가 보고되었으며, 영국(H. Rosenthal, N. Somers, P. Fleming, & J. Walsh, 2014)에서도 연인관계에 적용한 결과 적절한 신뢰도가 나타났다.

3. 성인애착과 사회인구학적 특성, 우울, 부모와의 애정

본 연구에서는 애착인물별 성인애착 점수를 토대로 도출된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형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특성, 우울, 부모와의 애정 수준의 차이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이와 동일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성인애착 수준 및 유형과 사회인구학적 특성, 우울, 부모자녀관계의 관련성을 살펴본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1) 성인애착과 사회인구학적 특성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가족소득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성별의 경우,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성인애착의 차이 여부가 일관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J. Lim(2008)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성인애착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S. Kang(2013)에 따

르면,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애착이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 어머니 각각에 대해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S. Ha(2015) 및 Y. Kim(2009)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애착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점수가 높았다. 그러나 E. Jun and K. Kim(2011)의 연구결과, 아버지 애착에서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어머니 애착에서만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애착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Y. Kim(2009)의 연구에서는 어머니 애착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성인애착을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로 나누어 살펴본 B. Kim(2014)는 남성보다 여성이 애착불안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외에도 Y. Lee, H. Min, and Y. Lee(2004)는 성별에 따라 안정, 불안-양가, 회피의 성인애착유형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연령에 따른 성인애착의 차이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성별과 마찬가지로 연구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J. Lim(2008)의 연구에서는 배우자 애착에 대한 응답을 토대로 군집분석을 통해 네 개의 애착유형을 도출하였는데, 이 중 불안정-양가애착 집단의 연령이 가장 낮았고, 불안정-회피애착 집단의 연령이 가장 높았다. 한편, B. Kim(2014)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연령이 높을수록 애착회피의 경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고, 15-54세의 성인을 조사한 K. Mickelson, R. Kessler, and P. Shaver(1997)의 연구에서는 15-24세 집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불안형에 속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았고 회피형에 속하는 사람의 비율은 낮았다.

가구소득에 따라 애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연구도 다소 존재한다. S. Kang(2013)의 연구에서 경제상태가 풍족한 대학생 집단에서 부모 애착이 높았다. K. Mickelson et al.(1997)의 연구에서는 소득이 가장 낮은 성인 집단이 다른 소득 집단에 비해 애착 안정형에 속하는 비율이 낮았고 불안형에 속하는 비율이 높았다.

2) 성인애착과 우울 및 부모와의 애정

대학생의 친밀한 관계에서 주요 인물인 아버지, 어머니, 친구, 연인 각각과의 성인애착 수준을 토대로 분류된 대학생의 애착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고자 할 때, 각 유형에 속하는 대학생들의 심리적 복지나 부모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유형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애착과 심리적 복지 간의 관계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기제 중 하나가 우울이다(Y. Chae & S. Kwak, 2013). 성인애착과 우울의 관련성은 이미 많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H. Jeon, 2003; J. Won & M. Chang, 2014; M. Wei, P. Heppner, D. Rusell, & S. Young,

2006). 지금까지 알려진 성인애착과 우울의 관계에 대한 주요 내용은 불안정한 성인애착을 형성할 경우 자기와 타인에 대한 표상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며, 이는 내적 작동모델의 형태로 지속되어 개인의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는 다른 방식으로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Y. Park and Y. Lee(2010)의 연구에서는, 애착불안이 슬프고, 외롭고, 거부당하고, 쓸모없고, 사랑받지 못하고, 의존적인 우울양식 뿐만 아니라, 가치 없고, 자기 비판적이며, 죄책감을 느끼고, 열등감에 의한 자기비판적인 우울양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비해 애착회피는 자기비판적 우울양식에만 특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즉, 전반적으로 애착불안이 애착회피보다 우울과 더 높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대해 저자들은 애착불안 수준이 높은 사람에게 거부당하지 않기 위해 상대방을 과잉통제하려는 성향이 있어 관계적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우울을 반복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애착불안, 즉 부정적 자기표상과 관련해서 대학생들 연구한 J. Won and M. Chang(2014)의 연구에서는 부정적 자기표상 집단(집착형, 두려움형)이 긍정적 자기표상 집단(안정형, 무시형)에 비해 우울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B. Kim and K. Oh(2013)는 애착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반추하는 방식으로 정서를 조절하는데, 이 때 경험하는 부정적인 정서에 대해 반복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서 우울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안정형, 무시형, 집착형, 두려움형과 같은 성인애착의 유형에 따라 우울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수준이 모두 높은 두려움형이 우울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Y. Chung and M. Lee(2005)의 연구에 따르면 4가지 성인애착의 유형 중 두려움형의 우울 수준이 가장 높았다. 또한 애착회피는 낮지만 애착불안이 높은 집착형은 애착불안이 낮지만 애착회피가 높은 무시형에 비해 우울 수준이 높았다. J. Won and M. Chang(2014)의 연구에서도 두려움형과 우울의 관계에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 자신과 타인에 대해 부정적 표상을 지닌 사람들이 우울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와 함께 애착불안이 애착회피보다 더 다양한 방식으로 우울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Y. Park & Y. Lee, 2010)를 종합해 보면, 두려움형이 우울에 가장 취약하며, 집착형이 안정형이나 무시형보다 높은 수준의 우울을 보고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애착인물별 애착과 우울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애착은 우울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N. Kim, 2012), 청소년

및 대학생의 우울에 대해 보호요인으로 작용함이 확인되었다(T. Harris & S. Molock, 2000; M. Yoon & J. Lee, 2010). 한편, E. Park(2009)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아버지 및 어머니 애착과 우울의 관계를 친구애착이 완전히 매개하였다. 이는 부모와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하게 되면 친구관계에서도 부정적이고 비수용적인 반응을 보이며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결과 높은 수준의 우울을 경험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와 반대로 N. Kim(2012)의 연구에서는 친한 친구 애착이 높은 대학생이 우울 수준도 높았다.

한편, 부모자녀관계의 질적, 정서적 특성인 부모와의 애정은 성인애착 수준을 토대로 분류된 대학생의 애착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고자 할 때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한국 미혼남녀의 성인애착을 안정형, 불안-양가형, 회피형으로 분류한 E. Noh, J. Park, and Y. Kim(2006)의 연구에서는 안정형의 90% 이상이 부모와의 유대 수준에서 '중' 또는 '상'에 속하여 부모와 애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반면, 불안-양가형과 회피형은 각각 81.4%와 61.6%가 부모와의 애정적 유대 수준이 '하'인 집단으로 분류되어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 C. Hazan and P. Shaver(1987)는 불안정한 애착유형인 회피형과 양가형은 안정형에 비해 부모와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기술하였고, A. Bernier, S. Larose, and N. Wipple(2005)은 불안이 높은 집착형의 청소년들이 부모와 부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H. Freeman and B. Brown(2001)의 연구에서는 안정형에 속하는 대다수의 청소년이 동료보다는 부모를 최우선의 애착인물로 선호한 반면, 회피형에 속하는 대다수의 청소년은 동료나 자신을 최우선의 애착인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회피형의 경우 부모와 부정적인 애정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상과 같이 성인애착이 우울 및 부모자녀관계와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는 애착인물별 애착수준을 토대로 대학생의 성인애착을 유형화한 후, 각 유형의 특성을 파악할 때 우울 수준과 부모와의 애정과 같은 특성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서울 및 수도권, 대구 및 경북, 광주 및 전남, 충남에 소재한 9개 대학교의 재학생을 대

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N = 317)

Characteristics	n(%)	Characteristics	n(%)
Gender		Father's education	
Male	113(35.6)	Less than high school	29(9.1)
Female	204(64.4)	High school diploma or GED	123(38.8)
Age: M = 21.13 (SD = 1.88)		Some college or Bachelor's degree	127(40.1)
School year		Graduate degree	37(11.7)
Freshman	69(21.8)	Mother's education	
Sophomore	88(27.8)	Less than high school	36(11.4)
Junior	93(29.3)	High school diploma or GED	155(48.9)
Senior	66(20.8)	Some college or bachelor's degree	106(33.4)
Birth order		Graduate degree	17(5.4)
One child	25(7.9)	Monthly family income (unit: KRW 10,000)	
1st	152(47.9)	99 or lower	12(3.8)
2nd	124(39.1)	100-199	19(6.0)
3rd or higher	11(3.4)	200-299	52(16.5)
Parent's marital status		300-399	58(18.4)
Now married	295(93.1)	400-499	42(13.3)
Widowed, divorced, or separated	22(7.0)	500-599	51(16.1)
Live with parents		600-999	58(18.4)
Yes	186(58.7)	1000 or higher	24(7.6)
No	130(41.0)		

Note Due to missing values, the total responses of some demographic variables are slightly smaller than the sample size.

상으로 이루어졌다. 질문지는 예비조사를 거쳐 완성되었으며, 담당교수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훈련된 조사원이 각 대학교의 강의실을 방문하여 조사의 취지 및 자료의 익명성을 설명한 후, 조사에 응할 것을 동의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대학교의 기말고사 전후에는 우울 등의 점수가 평소보다 높게 조사될 우려가 있으므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조사기간은 2011년 2학기과 2012년 1학기였으며, 자료수집 과정에 대해 소속 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았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응답자 중 성인이행기(emerging adulthood: J. Arnett, 2000)에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만 25세 이하 응답자의 자료만을 분석하였다. 또한, 다양한 애착인물과의 성인애착 수준을 모두 고려하기 위하여 아버지, 어머니(또는 부모 역할을 한 사람), 가장 친한 친구, 연인관계 경험이 모두 있고, 모든 분석변수에서 결측치가 없는 총 317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성 113명(35.6%), 여성 204명(64.4%)이었으며, 연령은 18세부터 25세까지 분포했고 평균 21.13세였다. 전 학년이 비교적 골고루 분포했으며, 출생순위는 첫째가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부모의 결혼지위를 보면 기혼이 대다수(93.1%)를 차지하였고, 절반이 넘는 186명(58.7%)은 학기 중에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부모의 교육수준에서는 아버지의 경우 대졸이 127명(40.1%)이고 고졸이 123명(38.8%)으로 유사한 비율을 차지하였고, 어머니는 고졸이

155명(48.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300-399만원이 58명(18.4%), 200-299만원이 52명(16.4%), 500-599만원이 51명(1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 변수 측정

1) 애착인물별 성인애착

대학생의 애착인물별 성인애착을 측정하기 위하여 자기 보고식 성인애착 검사인 the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Relationship Structures(ECR-RS: C. Fraley et al., 2011)를 사용하였다. ECR-RS는 아버지, 어머니, 가장 친한 친구, 연인 각각에 대하여 애착불안 3문항과 애착회피 6문항으로 구성된다. 애착불안은 버림받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의존하며 자신의 정서를 과도하게 표현하는 정도를 측정하며, '아버지/어머니/친구/연인에게 버림받을까 걱정된다', '내가 아버지/어머니/친구/연인에 대해 신경 쓰는 것만큼, 아버지/어머니/친구/연인이 나에게 대해 신경 쓰지 않을까 걱정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애착회피는 친밀감을 꺼리거나 불편해하는 정도를 측정하며, '아버지/어머니/친구/연인에게 내 마음 속 깊은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는 편이다', '내 문제나 걱정거리를 보통 아버지/어머니/친구/연인과 의논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ECR-RS는 7점 리커트 척도로 1점 '전혀 그렇지

지 않다'에서 7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애착 회피 차원에서 4개의 문항은 역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불안 및 애착회피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ECR-RS의 변안은 ECR-RS와 유사한 문항을 포함하고 있는 ECR-R을 국내에서 타당화한 S. Kim(2004)의 변안을 참고하여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가족학 교수가 한국어로 번안한 후, 영어와 한국어의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일반인에게 한국어 번안을 다시 영어로 바꾸도록 하여 영어 원문과 대조하는 역번안(back translation) 절차를 통해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내적 일관성 계수인 Cronbach's α 는 애착불안이 아버지, 어머니, 친구, 연인 순으로 .81, .84, .86, .82이었고, 애착회피의 Cronbach's α 는 아버지, 어머니, 친구, 연인에 대해 .86, .87, .87, .87의 순이었다. 이외에도,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국문으로 번안한 ECR-RS 9개의 문항이 아버지, 어머니, 친구, 연인관계 각각에 대해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두 개의 요인구조를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¹⁾.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Appendix A> 및 <Appendix B>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4가지 애착인물별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즉 8개의 변수 각각에 대해 9문항의 평균 점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2) 사회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도출된 각 성인애착 유형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 연령, 가족의 월평균 소득을 변수로 사용하였다. 성별은 '남성'과 '여성'의 이분변수로 측정하였으며, 연령은 만 연령을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소득은 가족의 월평균 소득을 '100만원 미만' 1점에서부터 '1,500만원 이상' 12점까지 12단계로 나누어 측정된 연속변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우울

대학생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L. Radloff(1977)가 개발한 자기보고형 우울 증상 측정도구인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CES-D)을 사용하였다. CES-D는 총 20문항으로 지난 한 주 동안에 경험한 우울증상의 빈도를 측정하며,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졌다', '주변에서 도와주어도 울적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다' 등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M. Lee(2002)이 번안한 문항을 사용하되, 20번 문항은 보다 정확한 번안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4점 척도로 '드물

게/없음(1일 미만)' 0점에서부터 '대부분/항상(5-7일)' 3점까지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긍정적 감정에 대해 묻는 4개 문항은 역산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CES-D의 Cronbach's α 값은 .93이었으며, 모든 문항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4) 부모와의 애정

부모와의 애정을 측정하기 위해 R. Roberts and V. Bengtson(1993)이 개발한 Perceived Parent-Child Affection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4문항으로,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귀하는 인생의 현 시점에서 아버지/어머니와 얼마나 가깝다고 느끼십니까?'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에 대하여 응답자가 평균적으로 지각한 부모와의 관계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부재할 경우 일상생활에서 어머니와 아버지 역할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척도의 국문 번안은 문항이 유사한 척도인 세대간 가족결속도 중 애정적 결속에 대한 S. Jang(2010)의 번안을 참고하여, ECR-RS와 동일한 방식의 역번역(back translation) 절차를 통해 검증하였다. 부모와의 애정은 6점 리커트 척도로 1점 '아주 조금'에서부터 6점 '매우 많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의 애정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부모와의 애정 측정도구의 내적 일관성 계수인 Cronbach's α 는 아버지에 대한 문항이 .89, 어머니에 대한 문항이 .85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에 대한 4개 문항의 평균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를 규명하기에 앞서, ECR-RS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모든 측정도구의 Cronbach's α 값을 확인하여 신뢰도를 검토하였다. 이어서, 연구문제 1인 애착인물별 성인애착 수준의 전반적인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 통계치를 산출하고 Pearson의 상관계수 및 산점도(scatterplot)를 살펴보았다.

연구문제 2인 대학생의 애착인물별 성인애착 수준의 응답패턴을 토대로 유형을 도출하기 위하여 아버지, 어머니, 친구, 연인의 4가지 애착인물별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점수를 측정된 8개 변수를 투입하여 잠재프로파일 분석

1) 탐색적 요인분석은 주축분해법(직접 오블리민 회전)을 사용하였고,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C. Fraley et al.(2011)가 제시한 대로 ECR-RS의 애착불안(7-9번 문항)과 애착회피(1-6번 문항) 두 개의 잠재변수를 가진 2요인 구조의 모형적합도를 검증하였다.

(latent profile analysis)을 실시한 후, 도출된 잠재프로파일의 특성을 고려하여 집단을 명명하였다. 잠재프로파일 분석은 구조모형을 사용하여 관찰되지 않은 잠재적인 집단을 발견하는 잠재계층 분석(latent class analysis)의 일종으로, 집단을 분류하는 데 사용되는 변수가 연속변수일 때 일반적으로 잠재프로파일 분석이라고 한다(G. Lubke & B. Muthén, 2005). 잠재프로파일 분석은 변수를 분류하는 요인분석과 달리 개인(사례)을 분류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군집분석과 유사하다. 그러나, 잠재변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측정오차를 통제할 수 있고, 집단의 수를 결정할 때 모형의 적합도 지수 등 통계치를 활용할 수 있으며,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각 개인이 특정집단에 속할 확률을 계산하는 등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군집분석보다 통계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G. McLachlan & D. Peel, 2000).

잠재프로파일 분석에서는 집단의 수를 늘려가면서 각 모형에서 산출되는 통계치를 활용하여 탐색적인 방법으로 집단의 수를 결정한다. 잠재프로파일 분석에서 집단의 수를 결정할 때 사용되는 통계치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S. Hong, 2008). 첫째, AIC(Akaike's information criterion),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SABIC(Sample-Size Adjusted BIC)와 같은 정보지수를 이용하는 것으로 AIC, BIC, SABIC의 값이 작을수록 좋은 적합도를 의미한다(S. Hong, 2008). 둘째, entropy 값을 이용하여 분류의 질을 살펴보는 것으로 1에 가까울수록 분류에서 오류가 적음을 의미하며, 대략 0.8 이상이면 좋은 분류라고 본다(S. Clark & B. Muthén, 2009). 셋째, 잠재프로파일이 k 개인 모형과 $k-1$ 개인 모형의 차이를 검증하는 Lo-Mendell-Rubin adjusted LRT test(LMR LRT: Y. Lo, N. Mendell, & D. Rubin, 2001) 나 parametric bootstrapped likelihood ratio test(BLRT: G. McLachlan & D. Peel, 2000) 등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검증의 결과 p 값이 유의하면 k 개의 모형을, 유의하지 않으면 $k-1$ 개의 모형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통계치들이 일관성 있게 특정한 수의 집단이 최적임을 알려주지 않을 때도 많다. 따라서 특정 집단에 속한 사례의 수가 지나치게 작지 않은지, 분석결과 해석가능성은 어떠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집단의 수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J. McCrae, M. Champman, & S. Christ, 2006). 특정 프로파일에 포함된 사례가 표본의 5% 미만이면, 프로파일의 수가 지나치게 많음을 의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는 편이며(J. Hipp & D. Bauer, 2006; E. Merz & S. Roesch, 2011), 해석가능성 및 유형 분류의 의의를 검토

하기 위하여,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늘렸을 때 질적으로 다른 집단이 나타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M. Kang, H. Cho, & J. Lee, 2013).

이어서, 연구문제 2인 잠재프로파일 분석에서 분류된 성인애착 유형에 따라 애착인물별로 애착불안 및 애착회피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연구문제 3인 유형에 따라 사회인구학적 특성(연령, 가족소득), 우울, 부모와의 애정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유형별 평균 차이가 유의미한 경우 Duncan 방식의 추후검증을 실시하여 구체적인 유형별 차이를 파악하였다. 또한, 유형별로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 이분변수인 성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제곱(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분석 중 잠재프로파일 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은 Mplus 7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분석은 SPSS 22를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애착인물별 성인애착의 전반적 경향

1) 애착불안 및 애착회피의 전반적 수준 및 상관관계

애착인물별 애착불안 및 애착회피의 전반적인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각 변수의 평균, 표준편차를 계산하였고, 각 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애착인물별 애착불안(점수범위: 1-7)의 평균은 1.66점에서 2.91점 사이로 전체적으로 중간보다 낮았다. 연인 애착불안($M = 2.91$)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어서 친구($M = 2.28$), 어머니($M = 1.81$), 아버지($M = 1.66$)의 순이었다. 애착인물별 애착회피(점수범위: 1-7)의 평균은 아버지($M = 4.11$)가 중간수준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어서 어머니($M = 3.24$), 연인($M = 3.05$), 친구($M = 2.44$)의 순이었다.

아버지, 어머니, 친구, 연인별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8개 변수 간의 상관계수는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상관계수 총 28개 중 4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40보다 작았으며, 11개의 상관계수는 .20보다 작았다. 상관계수는 .20 미만이면 약한 상관, .20에서 .40 사이이면 보통 수준의 상관을 의미하므로(L. Rea & R. Parker, 2005), 애착인물별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는 대체로 강하지 않은 정적 상관관계라고 할 수 있다.

Table 2. Intercorrelations and Descriptive Statistics of Study Variables

(N = 317)

Variable	Anxiety				Avoidance			
	Father	Mother	Friend	Romantic	Father	Mother	Friend	Romantic
Anxiety								
Father								
Mother	.74***							
Friend	.43***	.52***						
Romantic	.34***	.38***	.42***					
Avoidance								
Father	.22***	.17**	.17**	.14*				
Mother	.18**	.28***	.15**	.19***	.31***			
Friend	.24***	.23***	.26***	.13*	.17**	.29***		
Romantic	.22***	.21***	.17**	.30***	.24***	.19***	.35***	
M	1.66	1.81	2.28	2.91	4.11	3.24	2.44	3.05
SD	1.02	1.22	1.37	1.49	1.27	1.22	1.05	1.21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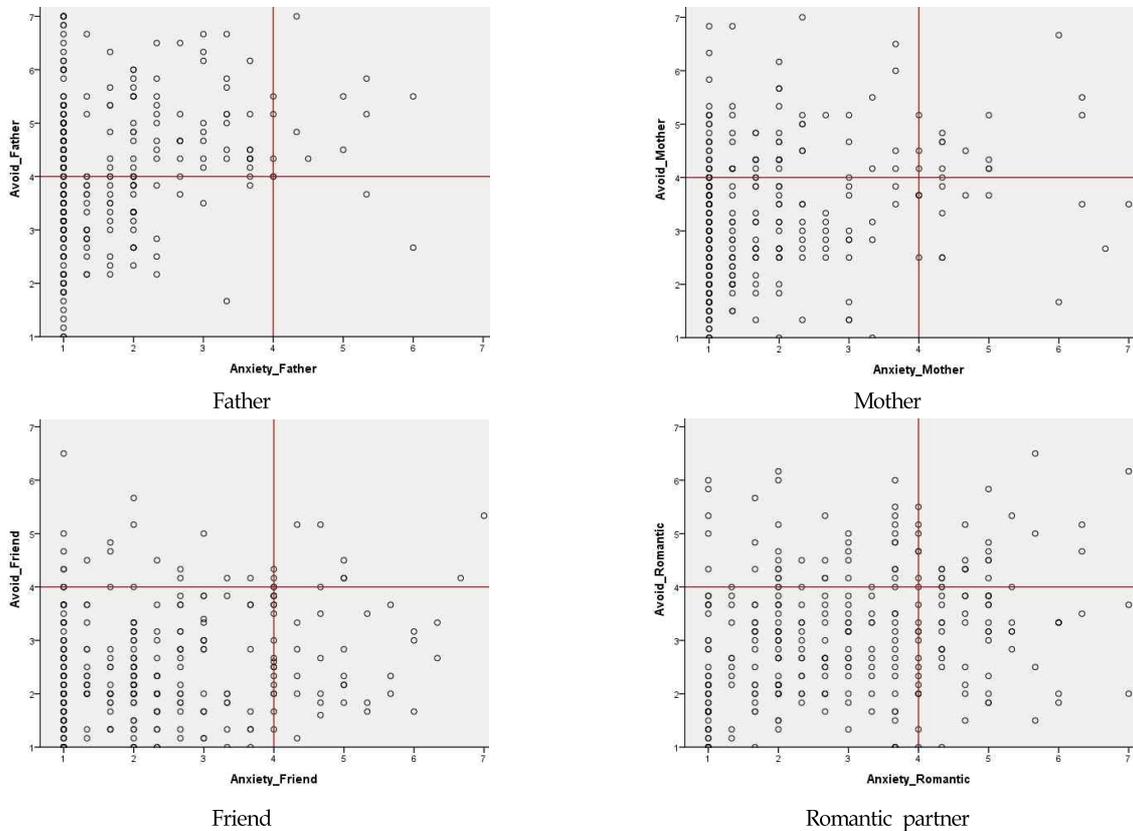


Figure 3. Scatterplot of adult attachment scores in specific relationships

2) 애착인물별 성인애착 점수 분포

대학생의 애착인물 각각에 대한 애착회피와 애착불안 점수의 산점도는 Figure 3과 같다. Figure 3에서 X축은 애착불안 값을, Y축은 애착회피 값을 의미한다. 중앙값인 4점을 표시한 선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아버지 애착은 애착불안이 낮고 애착회피가 높은 사분면에 가장 많은 응답자가 분포하였고, 애착불안이 높고 애착회피가 낮은 응답자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어머니 애착은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모두 낮은 사분면에 가장 많은 응답자가 분포하였고, 애착회피와 관계없이 애착불안이 높은 응답자는 매우 소수였다. 한편, 친구의 경우에는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모두 낮은 사분면에 가장 많은 응답자가 분포하였고, 애착불안 수준과 관계없이 애착회피가 높은 경우가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 연인의 경우에는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모두 낮은 사분면에 가장 많은 응답자가 분포하기는 하였지만, 다른 사분면에서는 응답자가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2. 애착인물별 성인애착 수준 유형화

1) 애착인물별 성인애착 수준의 잠재프로파일

대학생의 애착인물별 성인애착 수준을 유형화하기 위해 아버지, 어머니, 친구, 연인 4가지 애착인물별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점수를 측정된 8개 변수를 투입하여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다. 유형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2개부터 점차 늘려가면서 산출된 지수는 Table 3과 같다. AIC, BIC, SABIC는 값이 작을수록 적합한 모형임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잠재프로파일의 수가 많을수록 정보지수가 계속 작아져서 BIC는 7개인 모형, AIC와 SABIC는 8개인 모형에서 값이 가장 작았다. 분류의 질을 나타내는 entropy는 잠재프로파일 2개인 모형이 .97로 가장 높았으나, 나머지도 모두 .80 이

상으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S. Clark & B. Muthén, 2009). 잠재프로파일의 수 k 와 $k-1$ 인 모형을 비교하여 차이를 검증한 결과, LMR LRT 값은 유형의 수가 2개일 때만 유의미하였고, BLRT 값은 유형의 수가 2개인 경우부터 7개인 경우까지 계속 유의미하였다.

Table 3에 나타난 다양한 지수를 토대로 보면, 본 연구에서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한 가지로 명확하게 결정하기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경우, 사례의 수가 지나치게 작은 잠재프로파일이 존재하는지, 잠재프로파일별 차이를 해석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집단의 수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J. McCrae et al., 2006). 특정 잠재프로파일에 속하는 사례의 수가 전체 표본의 5% 미만으로 지나치게 작은 경우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Table 3의 가장 우측 열에서와 같이 유형의 수가 2개부터 4개일 때는 모든 잠재프로파일에 포함된 사례가 수가 전체의 5% 이상이었다. 그러나, 유형의 수가 5개 이상일 때는

Table 3. Comparison of Latent Profile Analysis Models: Fit Statistics

(N = 317)

Number of profiles	AIC	BIC	SABIC	Entropy	LMR LRT p value	BLRT p value	Profile < 5% of sample
2	7712.50	7806.47	7727.18	.97	.00	.00	None
3	7604.45	7732.26	7624.42	.90	.18	.00	None
4	7540.02	7701.65	7565.27	.88	.09	.00	None
5	7453.15	7648.61	7483.68	.89	.21	.00	1 profile
6	7402.83	7632.12	7438.65	.87	.76	.00	2 profiles
7	7349.38	7612.50	7390.48	.89	.78	.00	2 profiles
8	7334.74	7631.70	7381.13	.85	.53	.22	2 profiles
9	7340.35	7671.13	7392.02	.88	.26	1.00	2 profiles

Note: AIC = Akaike's information criterion; BIC =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SSA-BIC = Sample-Size Adjusted BIC; LMR LRT = Lo-Mendell-Rubin adjusted LRT test; BLRT = Bootstrapped likelihood ratio t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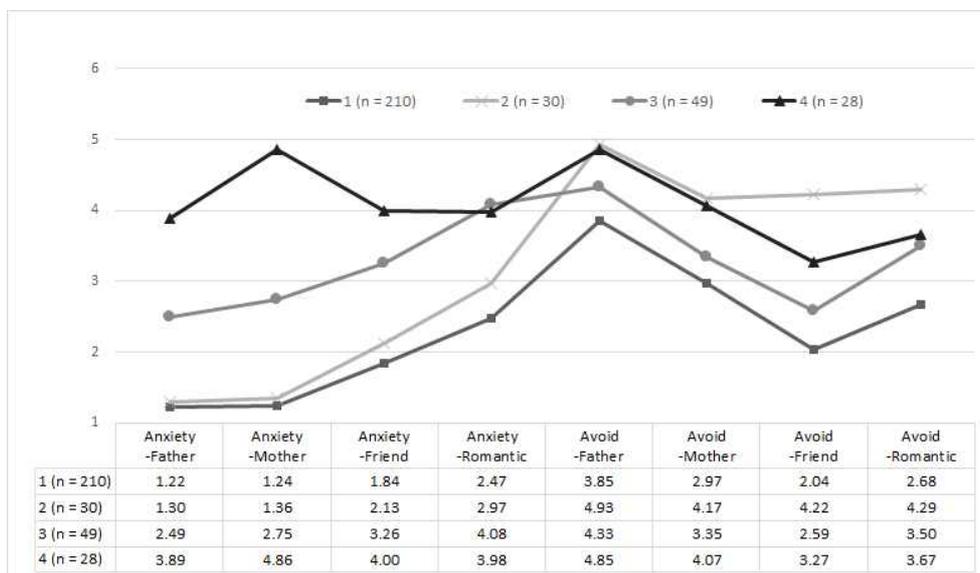


Figure 4. Latent profiles for attachment anxiety and avoidance across close relationships

전체 표본의 5% 미만만이 속한 잠재프로파일이 1개 이상 발견되었다. 해석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유형의 수를 2개부터 늘려가면서 잠재프로파일의 형태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산출하여 비교한 결과, 잠재프로파일의 수가 4개인 경우까지는 유형의 수가 늘어났을 때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집단이 나타났으나, 5개부터는 새로운 패턴의 집단이 나타나지 않고 기존 집단과 유사한 패턴이 점수의 높고 낮음 정도로만 분류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상과 같이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수와 각 잠재프로파일의 크기, 해석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연구에서 적절한 잠재프로파일의 수는 4개로 결정하였다. 특정 잠재프로파일에 속하는 사례의 수가 전체 표본의 5% 이상으로 각 유형에 속한 사례 수가 충분히 크고, 질적으로 차별적인 잠재프로파일이 도출되며, BLRT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entropy 등 다른 지수도 나쁘지 않기 때문이었다. 잠재프로파일의 패턴을 살펴보기 위하여 아버지, 어머니, 가장 친한 친구, 연인과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점수의 평균을 도식화하면 Figure 4와 같다.

유형 1은 아버지, 어머니, 친구, 연인과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의 모든 점수가 다른 유형보다 낮았다. 그러나, 유형 1 내에서 애착인물별 차이를 보면, 아버지 회피 점수가 중간 수준인 4점에 근접하여 상대적으로 높았다. 따라서 이 유형은 전반적으로 애착이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만 다소 회피적인 성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토대로 유형 1은 '아버지 회피적 안정형(somewhat father avoidant secure)'이라고 명명하였다. '아버지 회피적 안정형' 집단 내에서의 패턴을 보면, 애착불안은 부모의 경우가 특히 낮았고, 애착회피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가장 낮았으며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애착회피가 높았다. 전체 표본의 66.25%인 210명이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유형 2는 아버지, 어머니, 친구, 연인과의 애착불안 수준은 유형 1에 이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애착회피 수준은 네 집단 중 가장 높은 유형이었다. 애착불안 성향은 보이지 않지만 애착회피 성향은 인물에 관계없이 네 집단 중 가장 높다는 특징을 토대로 유형 2는 '전반적 회피형(overall avoidant)'라고 명명하였다. '전반적 회피형' 집단 내에서의 패턴을 보면, 애착불안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특히 낮았고, 애착회피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특히 높았다. 전체 표본의 9.46%인 30명이 '전반적 회피형'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유형 3은 잠재프로파일의 패턴이 전체적으로 유형 1과 유형 4 사이에 있으나, 연인관계에서의 애착불안은 다른 모든 유형보다 높다는 특징이 있었다. 이렇듯 연인과의 관계에서 애착불안이 특별히 높은 특징을 토대로 유형 3은 '연인불안형(romantic anxious)'이라고 명명하였다. '연인불안형' 집단 내에서 애착인물별로 패턴을 살펴보면, 애착불안은 연인과의 관계에서 가장 높았으며, 애착회피는 다른 유형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가장 높았다. 전체 표본의 15.46%인 49명이 '연인불안형'으로 분류되었다.

유형 4는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두 차원 모두에서 전체적으로 다른 유형보다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은 편이었다. 애착불안은 아버지, 어머니, 친구와의 관계에서 다른 모든 유형보다 높은 수준이었고, 연인과의 관계에서는 유형 3인 '연인불안형'과 유사하게 높았다. 애착회피는 아버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유형 2인 '전반적 회피형'과 유사하게 높았고 친구, 연인과의 관계에서는 '전반적 회피형'보다는 낮았지만 높은 편이었다. 유형 4는 모든 점수가 전반적으로 높아서 선 그래프가 다른 유형보다 위에 있다는 특징을 토대로 '전반적 불안-회피형(overall anxious-avoidant)'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유형 내에서 패턴을 살펴보면, 애착불안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특히 높았고, 애착회피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가장 높았다. 전체 표본의 8.83%인 28명이 '전반적 불안-회피형'으로 분류되었다.

2) 유형에 따른 애착인물별 성인애착 수준의 차이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 도출된 네 가지 유형별로, 유형화에 사용된 변수인 아버지, 어머니, 친구, 연인과의 애착불안 및 애착회피의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네 가지 유형별로 아버지, 어머니, 친구, 연인과의 애착불안 및 애착회피의 평균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 애착불안은 아버지, 어머니, 친구의 경우 '아버지 회피적 안정형'과 '전반적 회피형'의 평균이 가장 낮았고, '전반적 불안-회피형'의 평균이 가장 높았다. 연인관계에서의 애착불안은 '아버지 회피적 안정형'과 '전반적 회피형'이 '연인불안형'과 '전반적 불안-회피형'보다 낮았다. 즉, '연인불안형'은 연인관계에서의 애착불안이 '전반적 불안-회피형'과 유사한 수준이었고, 다른 애착인물과의 애착불안은 '전반적 불안-회피형'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애착회피는 아버지, 어머니의 경우 '아버지 회피적 안

2) 지면의 제약으로 Table 4 및 Table 5에 제시된 통계치(M , F , X^2 , p 등)는 본문에서 생략하였음.

Table 4. Between-Group Differences for Latent Profiles in Relationship-Specific Attachment Anxiety and Avoidance

(N = 317)

Variable	1. Secure ¹⁾	2. Overall avoidant	3. Romantic anxious	4. Overall anxious-avoidant	F	Duncan
	(n = 210)	(n = 30)	(n = 49)	(n = 28)		
	M(SD)	M(SD)	M(SD)	M(SD)		
Anxiety (1-7)						
Father	1.22(.41)	1.30(.44)	2.49(.95)	3.89(1.02)	202.39***	1 = 2 < 3 < 4
Mother	1.24(.40)	1.36(.47)	2.75(.79)	4.86(1.02)	403.36***	1 = 2 < 3 < 4
Friend	1.84(1.03)	2.13(1.19)	3.26(1.45)	4.00(1.45)	42.37***	1 = 2 < 3 < 4
Romantic	2.47(1.30)	2.97(1.42)	4.08(1.30)	3.98(1.61)	25.79***	1 = 2 < 3 = 4
Avoidance (1-7)						
Father	3.85(1.25)	4.93(1.02)	4.33(1.31)	4.85(.88)	11.92***	1 = 3 < 2 = 4
Mother	2.97(1.18)	4.17(.93)	3.35(1.20)	4.07(1.03)	15.38***	1 = 3 < 2 = 4
Friend	2.04(.71)	4.22(.72)	2.59(.93)	3.27(1.11)	79.66***	1 < 3 < 4 < 2
Romantic	2.68(1.08)	4.29(1.14)	3.50(1.03)	3.67(1.27)	26.56***	1 < 3 = 4 < 2

1) Shortened for the “somewhat father avoidant secure” group. *** p < .001.

Table 5. Between-Group Differences for Latent Profiles i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Depressive Symptoms

(N = 317)

Variable	1. Secure ¹⁾	2. Overall avoidant	3. Romantic anxious	4. Overall anxious-avoidant	χ ² (df)	F	Duncan
	(n = 210)	(n = 30)	(n = 49)	(n = 28)			
	n(%)	n(%)	n(%)	n(%)			
Gender							
Male	75(23.7)	13(4.1)	15(4.7)	13(3.2)	1.32(3)		
Female	135(42.6)	17(5.4)	34(10.7)	204(5.7)			
	M(SD)	M(SD)	M(SD)	M(SD)			
Age	21.28(1.86)	20.87(2.01)	21.04(1.76)	20.54(2.03)	1.60		
Family income	5.35(2.55)	5.60(2.88)	5.90(3.04)	4.11(2.18)	2.88**	4 < 1 = 2 = 3	
Depressive symptoms	.78(.49)	.86(.63)	1.09(.60)	1.46(.61)	15.61***	1 = 2 < 3 < 4	
Affection for father	4.17(1.08)	3.48(1.17)	3.66(1.02)	3.40(1.04)	8.29***	2 = 3 = 4 < 1	
Affection for mother	4.62(.90)	4.30(.89)	4.36(.82)	3.90(1.08)	6.28***	4 < 1 = 2 = 3	

1) Shortened for the “somewhat father avoidant secure” group. ** p < .01. *** p < .001.

정형’과 ‘연인불안형’이 ‘전반적 회피형’과 ‘전반적 불안-회피형’보다 낮았다. 친구관계에서의 애착회피는 ‘아버지 회피적 안정형’이 가장 낮고, ‘연인불안형’이 두 번째로 낮고, ‘전반적 불안-회피형’이 세 번째로 낮고, ‘전반적 회피형’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인관계에서의 애착회피는 ‘아버지 회피적 안정형’이 가장 낮고, ‘연인불안형’과 ‘전반적 불안-회피형’이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전반적 회피형’이 가장 높았다. 모든 애착인물에서 애착회피가 다른 집단보다 높은 유형은 ‘전반적 회피형’이었다.

3. 애착인물별 성인애착 유형의 특성

잠재프로파일 분석으로부터 도출된 네 가지 유형의 특성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유형에 따라 사회인구학적 특성, 우울, 부모와의 애정에서 차이가 있는지 카이제곱 검정과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첫째, 성인애착 유형별로 사회인구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 월평균 가족소득의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가족소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Duncan 방식의 사후검증 결과, ‘전반적 불안-회피형’의 가족소득이 다른 세 유형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및 가족소득에서는 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둘째, 대학생의 우울 증상은 성인애착 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아버지 회피적 안정형’과 ‘전반적 회피형’의 평균이 다른 두 유형보다 우울 수준이 낮았으며, ‘전반적 불안-회피형’의 우울 증상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연인불안형’의 우울 증상의 평균이 두 번째로 높았다. 마지막으로 부모자녀관계의 질적 특성인 부모와의 애정을 아버지와 어머니로 나누어 유형별 평균차이를 검증한 결과 아버지, 어머니 각각에 대한 애정 모두 유형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아버지에 대한 애정은 ‘아버지 회피적 안정형’이 다른 세 유형에 비해 평균이 높

았다. ‘아버지 회피적 안정형’ 집단 내에서는 아버지 애착 회피가 다른 인물과의 애착회피보다는 높지만 이 유형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유형으로, 다른 세 집단보다 아버지와 애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어머니에 대한 애정은 ‘전반적 불안-회피형’이 다른 세 유형에 비해 평균이 낮아서, 어머니와 가장 덜 애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ECR-RS(C. Fraley et al, 2011)를 사용하여 대학생의 주요 애착인물인 아버지, 어머니, 친구, 연인 각각과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점수를 토대로 대학생의 애착인물별 성인애착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전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서 아버지, 어머니, 친구, 연인과의 경험이 모두 있는 317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잠재프로파일의 특징을 토대로 유형을 명명한 후 유형별 평균차이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과 그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인 대학생의 애착인물별 성인애착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대학생의 애착인물별 애착불안 수준은 전체적으로 중간보다 낮은 수준이다. 즉, 평균적으로 볼 때 애착불안의 평균 점수가 낮아 아버지, 어머니, 친구, 연인과 같은 애착인물을 어려움 없이 신뢰하며, 애착인물이 반응적이고 좋은 사람인지 걱정하는 경향이 낮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애착인물과 비교할 때 연인 애착불안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다. 연인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얻는 대학생 시기에, 평균적인 대학생은 연인과 마음을 함께 나누는 친밀한 관계를 원하지만 한편으로는 연인인 상대방의 마음을 의심하며 자신을 떠날까봐 불안해하는 애착불안의 특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의 애착인물별 애착회피 수준은 네 가지 유형 모두에서 아버지 애착회피의 평균이 중간 이상으로 가장 높고, 그 외 애착인물인 어머니, 연인, 친구 애착회피 수준은 중간 이하이다. 애착회피 차원의 점수가 높은 사람은 애착인물에게 의지하거나 자신을 개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성향을 갖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아버지 애착회피 수준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한국의 대학생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마음을 여는 것을 어려워하고 피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가족 내 아버지-자녀관계의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 비해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으나(J. Lee, J. Kim, Y. Lee, & Y. Chin, 2012), 한국가족에서 부모역할의 전통적인 이념형은 엄부자모(嚴父慈母)였다. 근대화 이후 한국가족에서 아버지는 생계부양자로 인식되었고 자녀와의 상호작용은 어머니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소원한 경향이 있다(J. Choi & J. Lee, 2015). 따라서, 본 연구의 대학생들 역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정서적 유대나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지 못하고 회피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점수를 대응해서 비교하는 것은 측정도구의 특성상 어렵지만 전반적인 수준을 비교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한국 대학생의 애착불안은 전체적으로 중간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아버지 및 어머니 애착불안이 특히 낮다. 애착회피의 경우, 아버지 애착회피는 중간수준 이상이며, 나머지 인물과의 애착회피는 중간보다 낮다. 부모와의 관계에서만 보면 한국 대학생의 애착불안 수준이 상당히 낮은 반면, 애착회피는 이보다 높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을 추구하는 대학생 시기의 특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 거주하는 약 22,000명에게 ECR-RS를 사용하여 성인애착을 측정한 C. Fraley et al.(2011)의 연구에 나타난 애착불안 및 애착회피의 수준과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서구 성인(평균 31.35세)의 부모 및 친구관계에서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수준이 한국 대학생보다 미약하지만 일관되게 높다. 그러나, 연인관계에서의 애착불안 및 애착회피는 본 연구에 참여한 한국 대학생의 평균이 C. Fraley et al.(2011)의 연구에서보다 두 가지 모두 약 .06점 높다. 이러한 성인애착 수준의 차이가 문화권의 차이인지, 조사대상의 발달단계의 차이 때문인지는 후속 연구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규명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인 애착인물별로 측정한 대학생의 성인애착 수준에 따라 분류되는 유형의 수와 유형에 따른 애착인물별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면, 대학생의 애착인물별 성인애착 수준은 4개의 잠재프로파일로 분류할 수 있다.

유형 1은 네 가지 애착인물과의 관계에서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수준 모두 가장 낮아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고 있는 집단이다. 다만, 아버지 회피 점수가 중간 수준에 근접하여 유형 1 내에서 다른 애착인물과 비교할 때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애착회피를 보인다. 이러한 특징을 토대로 유형 1은 ‘아버지 회피적 안정형’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이 유형은 기존의 성인애착 유형(K. Bartholomew & L. Horowitz, 1991)에

서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모두 낮은 안정형(secure)과 유사하나, 아버지 애착회피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회피적 성향을 갖고 있다. 성인애착이 비교적 안정적인 집단에서도 아버지 애착회피가 중간 수준이라는 본 연구의 결과는, 애착인물별로 성인애착이 항상 유사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낸다. 이러한 결과는 애착인물을 고려하여 성인애착 유형화를 시도한 본 연구의 의의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아버지 회피적 안정형’은 본 연구에서 발견된 네 유형 중 가장 많은 대학생이 포함된 집단이다. 기존의 성인애착 유형을 활용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도 안정형에 속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M. Diehl, A. Elnick, L. Bourbeau, & G. Labouvie-Vief, 1998; K. Kim & W. Lee, 2005; S. Kim, M. Kang., & Y. Kim, 2011; G. Park & K. Lee, 2007; S. Shin, 2015).

유형 2는 전반적으로 애착불안이 유형 1인 ‘아버지 회피적 안정형’과 유사한 수준으로 낮으나 애착회피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인다. 이 유형의 애착회피는 모든 애착인물과의 관계에서 애착회피 수준이 높다. 이러한 특징을 토대로 유형 2는 ‘전반적 회피형’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이 유형은 기존의 성인애착 유형(K. Bartholomew & L. Horowitz, 1991) 중 애착회피만이 높은 무시형(dismissing)과 유사하다. ‘전반적 회피형’ 내에서의 패턴을 살펴보면, 애착불안은 인물과 관계없이 유형 1 ‘아버지 회피적 안정형’과 유사하게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애착회피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평균이 5점에 육박할 정도로 높고 어머니 애착회피는 친구 및 연인 애착회피보다는 점수가 낮다. 잠재프로파일 분석에서 도출된 다른 유형과 애착회피의 평균을 비교하면, 아버지 및 어머니 애착회피는 유형 4와 유사한 수준이고, 친구 및 연인과의 애착회피는 유형 4보다도 높다. 즉, 다른 유형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 회피형’은 모든 애착인물에서 일관되게 애착회피 수준이 높다. 한편, 유형 2인 ‘전반적 회피형’은 표본의 9.5%가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8.8%가 속한 유형 4와 함께 상대적으로 적은 대학생이 속한 집단이다. K. Bartholomew and L. Horowitz(1991)의 분류를 사용하여 대학생의 애착유형을 분석한 최근의 국내연구들(M. Jin, 2013; S. Jung & J. Kim, 2008; X. Peng & J. Chung, 2010)에서도 무시형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

유형 3은 다른 애착인물과의 관계에서는 평균 수준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를 나타낸 반면, 연인과의 관계에서는 높은 수준의 애착불안을 드러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형 3의 부모 및 친구 애착불안은 유형 1인 ‘아버지 회피적 안정형’과 유형 2인 ‘전반적 회피형’보다 높지만 유형 4보다는 낮다. 그러나, 연인 애착불안은 유형 4와 함께 네 유형 중 가장 높다. 반면, 애착회피는 유형 1과 유

사한 수준이거나 유형 1보다는 높지만 유형 2보다 낮다. 이러한 특징을 토대로 유형 3은 ‘연인 불안형’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이 유형은 기존의 성인애착 유형(K. Bartholomew & L. Horowitz, 1991) 중 애착불안은 높고 애착회피는 낮은 집착형(preoccupied)과 유사하지만, 집착형의 특징이 연인관계에서 두드러진다는 점이 이색적이다. 기존 성인애착 유형에서 집착형은 연인관계에서 종종 과도한 질투와 집착을 표현하며 이로 인한 극단적인 정서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인관계에서 문제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 Kim & W. Lee, 2005). 이러한 집착형의 특징은 본 연구의 유형 3인 ‘연인불안형’이 연인관계에서 특별히 불안성향을 갖고 있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대학생 시기의 이성관계 문제는 이 발달 시기에 가장 빈번히 보고되는 어려움 중의 하나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의 유형화 결과 ‘연인불안형’이 발견된 것은 의미 있는 수확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연인불안형’은 전체 표본의 15%가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유형 1 ‘아버지 회피적 안정형’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집단이다. K. Bartholomew and L. Horowitz(1991)의 애착유형을 사용한 국내 대학생 연구(M. Jin, 2013; S. Jung & J. Kim, 2008; X. Peng & J. Chung, 2010)에서 애착불안은 높고 애착회피는 낮은 집착형이 안정형 다음으로 많았던 것과 연결되는 결과이다.

유형 4는 전반적으로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모두 높은 집단이다. 애착불안의 경우, 부모 및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네 가지 유형 중 평균이 가장 높으며, 연인 애착불안은 유형 3인 ‘연인불안형’과 함께 가장 높다. 애착회피의 경우, 아버지 및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는 유형 2인 ‘전반적 회피형’과 함께 애착회피가 가장 높고, 친구 애착회피는 ‘전반적 회피형’보다는 낮지만 ‘아버지 회피적 안정형’과 ‘연인불안형’보다는 높다. 연인 애착회피는 ‘아버지 회피적 안정형’보다 높고, ‘연인불안형’과 유사한 수준이며, ‘전반적 회피형’보다는 낮다. 전반적으로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모두 높은 특성을 토대로 유형 4는 ‘전반적 불안-회피형’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이 유형의 특성은 K. Bartholomew and L. Horowitz(1991)의 성인애착 유형에서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모두 높은 두려움형(fearful)과 유사하다. ‘전반적 불안-회피형’ 집단 내에서의 패턴을 살펴보면, 어머니와의 애착불안 수준이 5점에 근접할 정도로 특히 높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즉, ‘전반적 불안-회피형’은 모든 애착인물과의 관계에서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성향을 갖고 있으나,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특히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고 어머니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의존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영유아기에 주양육자인 어머

니와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전반적 불안-회피형'의 특성은 대학생이 된 시점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어머니와의 불안정한 애착이 다른 애착인물과의 관계에서도 불안해하면서도 회피적인 애착 특성으로 이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유형 4 '전반적 불안-회피형'은 본 연구에서 8.8%가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유형 2 '전반적 회피형'(9.5%)과 함께 적은 수의 대학생이 속한 유형이다. 기존의 애착유형에서 유형 4와 유사한 두려움형의 비율은 연구마다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애착유형 중 두려움형의 비중이 가장 낮았던 연구도 상당수 있으며(M. Diehl et al., 1998; S. Shin, 2015), 무시형 다음으로 비율이 낮았던 연구도 많다(M. Jin, 2013; S. Jung & J. Kim, 2008; X. Peng & J. Chung, 2010).

연구문제 3은 분류된 애착인물별 성인애착 유형에 따른 대학생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우울, 부모와의 애정에서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각 유형의 특성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

유형 1인 '아버지 회피적 안정형'은 가족소득이 유형 4인 '전반적 불안-회피형'보다 유의하게 높고, 우울 증상이 유형 2인 '전반적 회피형'과 함께 가장 적고, 아버지와는 다른 세 집단보다 애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어머니와는 '전반적 불안-회피형'보다 애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아버지 회피적 안정형'에 속하는 대학생은 다른 애착인물에 비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다소 애착회피 성향을 갖고 있으나 다른 유형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애착인물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고 있는 집단이다. 이러한 안정적인 애착은 심리적으로 잘 적응하고 부모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기존의 성인애착 유형 중 안정형의 경우 연인과의 친밀한 관계형성에 별다른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버림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없어 주요 애착인물과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심리적으로 건강하다는 선행연구의 결과(C. Hazan & P. Shaver, 1987)와 일맥상통한다. 흥미로운 것은, '아버지 회피적 안정형'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는 다른 세 집단보다 애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던 반면, 어머니와의 애정 수준에서는 '전반적 회피형'이나 '연인불안형'과 유사하고 '전반적 불안-회피형'과 비교할 때만 더 애정적이었다는 점이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는,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모두 높은 '전반적 불안-회피형'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대학생이 유사한 수준의 애정을 보고하지만, 애착인물 중 상대적으로 소원한 존재인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는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모두 높을 때만이 다른 유형보다 애정적인 관계

를 맺고 있는 것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대학생이 부모와 애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우울이나 외로움을 덜 경험하는데(C. Lee, B. Dik, & L. Barbara, 2015),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보면 높은 심리적 복지 수준과 부모 두 사람 모두와의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의 원동력은 낮은 애착불안 및 애착회피로 대표되는 안정적인 성인애착에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유형 2인 '전반적 회피형'은 가족소득이 유형 4인 '전반적 불안-회피형'보다 높으며, 우울 수준은 유형 1인 '아버지 회피적 안정형'과 유사하고, 아버지와의 애정은 '아버지 회피적 안정형'보다 낮은 수준이고, 어머니와의 애정은 '전반적 불안-회피형'보다 높은 수준이다. '전반적 회피형'의 우울 수준을 장기종단적으로 추적해 보아야 보다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지만, 이 연구의 결과만으로 보면 '전반적 회피형'의 심리적 적응은 양호한 편이다. '전반적 회피형'이 모든 애착인물과의 관계에서 높은 애착회피 성향을 갖고 있는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우울 수준이 높지 않고, 어머니와의 관계는 유형 4인 '전반적 불안-회피형'보다 긍정적이라는 것은 다소 의외의 결과이다. 현재의 결과만으로 보면 애착회피가 애착불안만큼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에 타격을 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심리적 독립이나 자율성을 획득해야 하는 대학생 시기에 애착인물에게 보이는 어느 정도의 애착회피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아버지 애착회피 수준이 높으면 사려형 대처양식을 덜 사용한다는 연구결과(E. Jang & J. Lee, 2015)와 같이 애착회피의 부정적인 영향이 보고되고 있는 점을 볼 때, 대학생의 애착회피와 심리적 복지의 관계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유형 3인 '연인불안형'은 가족소득이 유형 1인 '아버지 회피적 안정형'과 유형 2인 '전반적 회피형'과 유사하지만, 우울 수준은 '아버지 회피적 안정형' 및 '전반적 회피형'보다 높으며, 아버지와는 '아버지 회피적 안정형'보다 덜 애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어머니와는 유형 4인 '전반적 불안-회피형'보다 애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연인불안형' 잠재프로파일의 패턴을 살펴보면, 연인관계에서의 애착불안이 가장 높은 것을 제외하고는 애착불안이나 애착회피 수준이 다른 집단에 비해 두드러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인불안형'의 우울 증상이 '아버지 회피적 안정형' 및 '전반적 회피형'보다 높다는 연구결과는 연인과의 애착, 특히 연인관계에서의 애착불안이 우울과 같은 대학생의 심리적 복지에 고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애착불안이 애착회피보다 더 다양한 방식으로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Y. Park

& Y. Lee, 2010)도 이를 뒷받침한다. 유형 3인 '연인불안형'은 대학생의 애착인물별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를 분리하여 측정하고 유형화한 본 연구에서 특별히 발견된 유형인데, 이 유형이 '아버지 회피적 안정형'이나 '전반적 회피형'보다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결과는 대학생의 애착과 우울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기여하는 본 연구의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유형 4인 '전반적 불안-회피형'은 가족소득이 다른 세 유형보다 낮으며, 우울 증상이 네 집단 중 가장 심각하고, 아버지와는 유형 1인 '아버지 회피적 안정형'보다 덜 애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어머니와는 나머지 세 유형보다 덜 애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기존의 성인애착 유형을 사용한 선행연구(Y. Chung & M. Lee, 2005; J. Won & M. Chang, 2014)에서 두려움형(fearful)의 특징으로 언급한 것과 유사하게, 본 연구의 '전반적 불안-회피형'도 심리적 적응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부모와 상대적으로 소원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집단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특히, '전반적 불안-회피형'은 어머니와의 관계가 '아버지 회피적 안정형', '전반적 회피형', '연인불안형' 모두에 비해 덜 애정적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의 연구문제 2에서 '전반적 불안-회피형'은 어머니 애착불안이 특히 높은 집단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렇게 어머니가 자신을 버리고 떠날까봐 걱정하고 어머니에게 집착하고 의존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어머니와 애정적으로 소원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전반적 불안-회피형'에게 있어 어머니는 다가가고 싶어도 다가가지 못하는 매우 양가적인 존재임을 암시한다. 또한 '전반적 불안-회피형'의 우울 수준이 네 집단 중 가장 높은 것도 어머니에 대한 애착불안과 어머니와의 애정적이지 못한 관계가 특히 강력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어머니와의 애착이 불안정한 경우 타인과의 관계 맺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심리적 복지 또한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한 수많은 선행연구(N. Kim, 2012; M. Yoon & J. Lee, 2010)를 통해서도 '전반적 불안-회피형'의 특징을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전반적 불안-회피형'은 가족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이었는데, 낮은 가족소득이 부모의 정서 및 행동 문제, 부부갈등을 통해 부정적인 양육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가족스트레스모델(R. Conger, K. Conger, & M. Martin, 2010)을 토대로 볼 때, 낮은 가족소득은 아동기 및 청소년기에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경험할 가능성을 높이고,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성향을 형성한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소득이 높은 수준의 애착불안 및 애착회피를 특징으로 하는 '전반적 불안-회피형'으로

이어지는 경로에 대해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비확률표집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대표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표본의 성비는 상대적으로 여자 대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료의 한계를 보완하여 좀 더 높은 대표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둘째, 아버지, 어머니, 친구, 연인과의 경험이 모두 있는 대학생의 자료만을 분석했기 때문에 부모가 부재하거나 교제 경험이 없는 대학생의 애착인물별 성인애착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포괄적인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애착인물을 고려하는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성인애착 유형의 기초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회인구학적 특성, 우울 수준, 부모와의 애정에서의 유형별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유형의 차이를 파악하는데 사용된 변수가 제한적이며, 성인애착 유형이 부모자녀관계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방식을 고려하지 못했다. 후속 연구에서는 성인애착 유형과 부모자녀관계 및 우울의 관계를 살펴볼 때 매개변수나 조절변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애착인물별로 성인애착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활용하여 대학생의 성인애착을 새롭게 유형화함으로써, 애착인물별 성인애착의 차이에 관심을 두지 않은 기존 성인애착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아버지 회피적 안정형'이나 '연인불안형'과 같이 애착인물을 고려한 연구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을 찾아냈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새롭게 도출된 유형과 기존 애착유형의 유사점을 논의함으로써, 성인애착 연구자들이 널리 사용하고 있는 애착유형이 애착인물을 고려한 상태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발견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수확은 애착인물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애착유형을 확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후속연구를 통하여 대학생의 애착인물별 성인애착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시도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Ainsworth, M. D. S. (1989). Attachment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4), 709-716.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 Erlbaum.
-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5), 469-480.
- Bączkowski, B. M., & Cierpiałkowska, L. (2015). Mentalization within close relationships: The role of specific attachment style. *Polish Psychological Bulletin*, *46*(2), 285-299.
- Baldwin, M. W., Keelan, J. P. R., Fehr, B., Enns, V., & Koh-Rangarajoo, E. (1996). Social cognitive conceptualization of attachment styles: Availability and accessibility effec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1), 94-109.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2), 226-244.
- Bernier, A., Larose, S., & Whipple, N. (2005). Leaving home for college: A potentially stressful event for adolescents with preoccupied attachment patterns. *Attachment and Human Development*, *7*(2), 171-185.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Vol. 3. Loss, sadness and separation*.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88). *A secure base: Clinical applications of attachment theory*. London: Routledge.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romantic attachment: An integrative overview. In J. A. Simpson, & W. 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pp. 46-76). New York: Guilford Press.
- Chae, Y., & Kwak, S. (2013).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university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empathic ability and depression.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22*(6), 599-613.
- Cho, H., & Seo, Y. (2010). Parental attachment, separation-individuation, adult attachment, college adjustment, and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college freshmen.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22*(2), 385-411.
- Cho, Y., & Choi, H. (2001). Parental attachment,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adult.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13*(2), 71-91.
- Choi, J-A., & Lee, J. (2015). Beyond Oedipal fathers: Revisiting fathers in psychoanalytic theory.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34*(2), 429-451.
- Choi, S. (1989). *Contemporary society and welfare for older adults*. Seoul: Hongikjeh.
- Chung, O., Chung, S., & Hwang, H. (2009). *Attachment and human development*. Seoul: Hakjisa.
- Chung, Y., & Lee, M. (2005). Relationship among adult attachment styles, negative cognitive distortion, and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24*(1), 167-184.
- Clark, S. & Muthén, B. (2009). *Relating latent class analysis results to variables not included in the analysis*. Submitted for publication. Retrieved from <http://www.statmodel.com/download/relatinglca.pdf>
- Colby, P. (2009). *A short introduction to attachment and attachment disorder*. London: Jessica Kingsley Publishers.
- Collins, N. L., &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4), 644-663.
- Conger, R. D., Conger, K. J., & Martin, M. J. (2010). Socioeconomic status, family processes, and individual developmen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2*(3), 685-704.
- Diehl, M., Elnick, A. B., Bourbeau, L. S., & Labouvie-Vief, G. (1998). Adult attachment styles: Their relations to family context and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6), 1656-1669.
- Erikson, E. H. (1959). *Identity and the life cycle: Selected paper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Fraley, R. C., Heffernan, M. E., Vicary, A. M., & Brumbaugh, C. C. (2011). The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Relationship Structures questionnaire across relationships. *Psychological Assessment*, *23*(3), 615-625.
- Fraley, R. C., Hudson, N. W., Heffernan, M. E., & Segal, N. (2015). Are adult attachment styles categorical or dimensional? A taxometric analysis of general and relationship-specific attachment orient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9*(2), 354-368.

- Fraley, R. C., & Waller, N. G. (1998). Adult attachment patterns: A test of the typological model. In J. A. Simpson, & W. 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pp. 77-114). New York: Guilford Press.
- Fraley, R. C., Waller, N. G., & Brennan, K. A. (2000). An item-response theory analysis of self-report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2), 350-365.
- Freeman, H., & Brown, B. B. (2001). Primary attachment to parents and peers during adolescence: Differences by attachment styl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0*(6), 653-674.
- Griffin, D., & Bartholomew, K. (1994). Models of the self and other: Fundamental dimens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3), 430-445.
- Ha, S. (2015). Effects of parental attachment on college students psychological maladjustment, career indecision, risk in intimacy mediated by self-differentiation.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9*(4), 189-209.
- Han, G. (2013).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al attachment in childhood and depression of college students: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adult attachment.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4*(5), 3065-3087.
- Harris, T. L., & Molock, S. D. (2000). Cultural orientation, family cohesion, and family support in suicide ideation and depression among African American college student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0*(4), 341-353.
- Hazan, C., & Shaver, P. R.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3), 511-524.
- Hazan, C., & Zeifman, D. (1994). Sex and the psychological tether. In K. Bartholomew, & D. Perlman (Eds.), *Attachment process in adulthood* (pp. 151-178). London, England: Jessica Kingsley.
- Hipp, J., & Bauer, D. (2006). Local solutions in the estimation of growth mixture models. *Psychological Methods, 11*(1), 36-53.
- Hong, J. (2006).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university students' attachment to parents and psychological independence. *Asian Journal of Child Welfare and Development, 4*(4), 85-99.
- Hong, S. (2008). [Program 3]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dvanced S & M Research Group*.
- Hwang, S. (2010). *The relationship among male college students attachment, parent's attachment and student's interpersonal relationship*.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Jang, E., & Lee, J. (2015). The role of differentiation of self and adult attachment across close relationships in the coping styles of Kore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20*(2), 27-53.
- Jang, H. (1997). The attachment, self-esteem, self-efficacy in adolescence.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4*(1), 88-106.
- Jang, H. (1999). Measuring adult attachment: Review of the interview and self-report instrument.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6*(2), 147-168.
- Jang, S. (2010). Inter-generational family solidarity. Korean Gerontology Forum. (Ed.). *Gerontology measurements* (pp. 302-312). Seoul: Na-num-eui Jib.
- Jarnecke, A. M., & South, S. C. (2013). Attachment orientations as mediators in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7*(4), 550 - 559.
- Jeon, E. (2010). *Influence of attachment and anxiety of college students on their peer relationship and romantic relationship*.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 Jeon, H. (2003). Mechanisms of mother-infant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attachment: The effects of attachment history with parents on mother's parenting behaviors and infant attachment pattern and behavior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8*(3), 159-174.
- Jin, M. (2013). Adult attachment, romantic relationships, and interpersonal problems amongst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Play Therapy, 16*(4), 285-300.
- Jin, M., & Yoo, M. (2005). Review of attachment measurements from infancy to adulthood.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12*(4), 139-158.
- Joo, E. (2010). Romantic attachment and love styles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7*(12), 155-186.
- Jun, E., & Kim, K. (2011). Influence of attachment and anxiety of college students on their peer relation-

- ship and romantic relationship. *Catholic Journal of Social Science*, 27, 67-91.
- Jung, S., & Kim, J. (2008). The effects of attachment styles on conflict resolution strategy in social relationship. *Asian Journal of Education*, 9(1), 1-22.
- Kang, M. C., Cho, H. J., & Lee, J. S. (2013). A latent profile analysis of depression, anxiety, shame, and suicidal ideation.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25(4), 873-896.
- Kang, S. (2013). *Attachment to parents, self-differentiation and consciousness for supporting parents perceived by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je University, Gyeongsangnam-do, Korea.
- Kim, B. (2014). The influence of family-of-origin functioning on fear-of-intimacy: The mediating effect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52(4), 337-345.
- Kim, B., & Oh, K. (2013). Exploration of Mediator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depressive mood in college students: brooding and emotion suppression.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25(30), 519-548.
- Kim, J. (1992). *Meaning of love*.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Kim, J. (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maltreatment experiences, temperament and children's impulsive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o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K. (2005). Stability in adult attachment and its relation with Cadet's early phase adaptation.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17(2), 485-501.
- Kim, K., & Lee, W. (2005). Adult attachment styles and factors associated with relation satisfaction in romantic relationship.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17(1), 233-247.
- Kim, N. (2012). Factors affecting depression of college freshmen. *Mental Health & Social Work*, 40(4), 5-26.
- Kim, S. (2004). *Adaptation of the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Revised scale into Korea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item response theory approach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Kim, S., Kang, M., & Kim, Y. (2011). The relationships among adult attachments style, parental attachmen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ndecision: Based on a moderated mediation model.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2(5), 1703-1718.
- Kim, Y. (2009). *Effect of attachment style on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nam University, Daejeon, Korea.
- Kim, Y. (2012). The effect of insecure attachment on psychological well-being: The roles of emotional experiences as mediator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9(9), 231-256.
- Klohnen, E. C., Weller, J. A., Luo, S., & Choe, M. (2005). Organization and predictive power of general and relationship-specific attachment models: One for all, and all for on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12), 1665-1682.
- Lee, C-Y. S., Dik, B. J., & Barbara, L. A. (2015).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and individual adjustment during emerging adulthood. *Journal of Family Issues*, OnlineFirst.
- Lee, D., Lee, S., & Kim, H. (2009). The classification of attachment types using latent profile analysis.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3(1), 55-67.
- Lee, J., Kim, J., Lee, Y., & Chin, Y. (2012). A meta-analytic study of associations between father involvement and children's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7(1), 151-173.
- Lee, M. (2002).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 in the Korean Version. *Korean Association of Health and Medical Sociology*, 12, 43-62.
- Lee, S., & Lee, J. (2005). The relationships among attachment style, parent-peer attachment, and emotional characteristics in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17(4), 947-963.
- Lee, Y., Min, H., & Lee, Y. (2004). The impact of parents' marital conflict and adult attachment on college students' ego-resiliency. *Th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2(4), 63-72.
- Lim, J. (2008). Relations of adults' attachment type with marriage, experience of dating, experience of los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3(2), 411-428.
- Lo, Y., Mendell, N. R., & Rubin, D. B. (2001). Testing the number of components in a normal mixture. *Biometrika*, 88(3), 767-778.
- Lubke, G., & Muthén, B. (2005). Investigating pop-

- ulation heterogeneity with factor mixture models. *Psychological Methods*, 10(1), 21-39.
- Main, M., Kaplan, N., & Cassidy, J. (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In I. Bretherton & E. Waters (Ed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 (1-2, Serial No. 209, pp. 66-106).
- McCrae, J. S., Champman, M. V., & Christ, S. L. (2006). Profile of children investigated for sexual abuse: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symptoms and service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6(4), 468-481.
- McLachlan, G. J., & Peel, D. (2000). *Finite mixture models*. New York: Wiley & Sons.
- Merz, E., & Roesch, S. (2011). A latent profile analysis of the five factor model of personality: Modeling trait interaction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1(8), 915-919.
- Mickelson, K. D., Kessler, R. C., & Shaver, P. R. (1997). Adult attachment in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5), 1092-1106.
- Noh, E., Park, J., & Kim, Y. (2006). The relationship among adult attachment types, Love styles and dating of single people.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4(12), 31-42.
- Park, E. (2009).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uveniles' parental attachment and their depression & social anxiety: Testing of the mediating effects of peer attachment and self-respect*.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E., & Lee, J. (2009). The influence of the father's attachment and support on college students' career search self-efficacy and career search behavior.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0(2), 947-965.
- Park, G., & Lee, K. (2007). Self-acceptance and negative feelings and affection for friends according to adult attachment styl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19(1), 71-85.
- Park, Y., & Lee, Y. (2010). The effects of anxious attachment and avoidant attachment on interpersonal problems: the mediation effects of depressive experience style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9(2), 441-452.
- Peng, X. J., & Chung, J.-J. (2010). The relationship of the type of attachment and interpersonal relation tendency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special education of Korea and China. *Journal of Disabled Children's Human Rights*, 1(1), 59-84.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 Rea, L. M., & Parker, R. A. (2005). *Designing and conducting survey research a comprehensive guide* (3rd edition).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Roberts, R. E. L., & Bengtson, V. L. (1993). Relationships with parents, self-esteem,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young adulthood: A further examination of identity theory. *Social Psychological Quarterly*, 56(4), 263-277.
- Rosenthal, H. E. S., Somers, N., Fleming, P., & Walsh, J. (2014). The contributions of interpersonal attachment and friendship group identification to depressive symptoms in a nonclinical sample.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44(6), 409-414.
- Ross, J., & Fuertes, J. (2010). Parental attachment, interparental conflict, and young adults emotional adjustment.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8(8), 1050-1077.
- Shaver, P. R., & Brennan, K. A. (1992). Attachment styles and the "big five" personality traits: Their connections with each other and with romantic relationship outcom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8(5), 536-545.
- Shin, J. (2002).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s among children's perceived father/mother attachment, perceived competence and the quality of peer relationship*.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Shin, J., Bang, H., & Yoon, J. (2009). The relations among female college students attachment, parent's attachment and student's interpersonal competenc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14(3), 347-363.
- Shin, N., & An, C. (2004). The relationships among adult attachment styles, social anxiety, self-concept, self-efficacy, coping strategy, and social support.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3(4), 949-968.
- Shin, S. (2015). The relationships of stress coping styles

- and college adjustment according to adult attachment styl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2(4), 1-21.
- Simpson, J. S., Rholes, W. S., & Phillips, D. (1996). Conflict in close relationships: An attachment perspec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5), 899-914.
- Sroufe, L. A., & Fleeson, J. (1986). Attachment and the construction of relationships. In W. W. Hartup, & Z. Rubin (Eds.), *Relationships and development* (pp. 51-71).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Sun, S. (2009). *Parental attachment, psychological separation from their parents and adult attach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 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eoul, Korea.
- Wei, M., Heppner, P. P., Rusell, D. W., & Young, S. K. (2006).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ineffective coping as mediators between attachment and future depression: A prospective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1), 67-79.
- Won, H., & Lee, Y. (1997). Attachment styles: Implications for psychotherapy and mental disorders. *Research Questions in Psychology*, 4, 85-116.
- Won, J., & Chang, M. (2014).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otropy and autonom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and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26(2), 341-361.
- Yoon, M., & Lee, J. (2010). A longitudinal effects of parent attachment on depression in early adolescence. *Social Science Research*, 26(2), 6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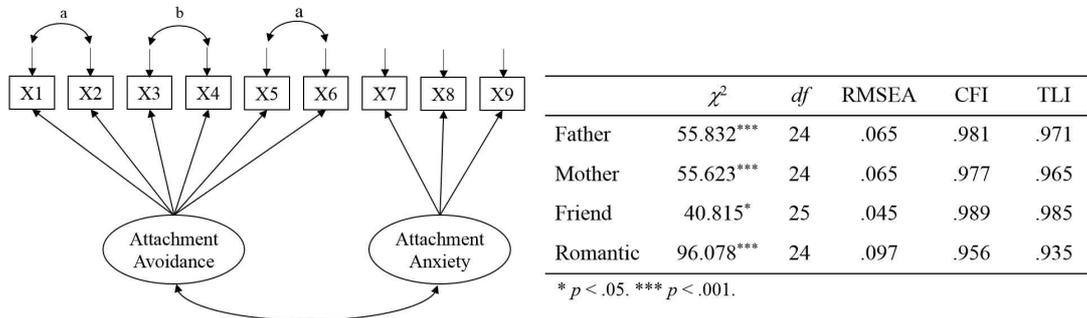
- Received: May 15, 2015
- Revised: July 20, 2015
- Accepted: August 13, 2015

<Appendix A> ECR-RS Item Factor Loadings: Oblimin-Rotated Two-Factor Solution (N = 317)

Item	Father		Mother		Friend		Romantic	
	1	2	1	2	1	2	1	2
1(R)	.847	.155	.846	.065	.847	.174	.848	.238
2(R)	.898	.220	.843	.039	.885	.134	.878	.247
3(R)	.782	.198	.745	.169	.815	.094	.807	.167
4(R)	.795	.253	.810	.182	.797	.143	.793	.139
5	.456	.222	.464	.240	.580	.396	.495	.420
6	.658	.374	.584	.339	.580	.491	.602	.472
7	.207	.748	.073	.704	.184	.845	.113	.758
8	.250	.789	.176	.803	.111	.746	.219	.834
9	.308	.846	.326	.786	.231	.858	.336	.735

Notes. (R) = Reverse coded item. Boldface indicates highest factor loadings. Items are (1) I usually discuss my problems and concerns with my [figure]; (2) I talk things over with my [figure]; (3) It helps to turn to my [figure] in times of need; (4) I find it easy to depend on my [figure]; (5) I prefer not to show my [figure] how I feel deep down; (6) I don't feel comfortable opening up to my [figure]; (7) I am afraid my [figure] may abandon me; (8) I worry that my [figure] won't care about me as much as I care about her/him; (9) I often worry that my [figure] doesn't really care for me. [Figure] = father, mother, best friend, or partner.

<Appendix B> Two-factor Measurement Model and Fit Statistics of ECR-RS



Notes. In father, mother, and romantic partner models, two covariances (marked "a") were added. In the best friend model, one covariance (marked "b") was added.